

여성행복한도시대전 2017 Vol. 25

대전광역시



행복한

도시 :

ZOOM-IN

기획대담 | 청년, 청춘에 대해 말하다
"일자리에서 '살자리'로
넘어가는 정책 전환 필요"

ISSUE & VIEW

청년, 사회 문턱에
걸려 넘어지다
노동사회의 청년은
왜 단일한 범주로 인식되는가?

대전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Tel 042-270-4661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은 대전광역시와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함께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발 행 인 | 대전광역시장
발 행 일 | 2017년 6월 30일
편집위원 | 주혜진·김민영·김형석·류유선·허용주 편집 | 이유라
발 행 처 |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디자인·제작 | 디자인스튜디오 203 대전

CONTENTS

ZOOM-IN

- 02 청년, 청춘에 대해 말하다
“일자리에서 ‘살자리’로 넘어가는 정책 전환 필요”



ISSUE & VIEW

- 06 청년, 사회 문턱에 걸려 넘어지다
- 08 노동사회의 청년은 왜 단일한 범주로 인식되는가?

GENDER! TALK & PLAY

- 10 당신에게 걸그룹은 어떤 존재인가요?
- 11 소방관이 되고 싶은 여자, 간호사가 되고 싶은 남자



이야기 하나

- 12 새롭게 바뀐 청춘과 공유의 공간
‘청춘다락’으로 오세요
- 14 우리동네 청소년 문화 아지트
평송청소년문화센터
- 16 모자가정의 따뜻한 보금자리
루시모자원



이야기 둘

- 18 성평등 도시 대전
‘두런두런’ 이런 일이
- 21 기초자치단체 활동 엿보기
- 24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NEWS

이야기 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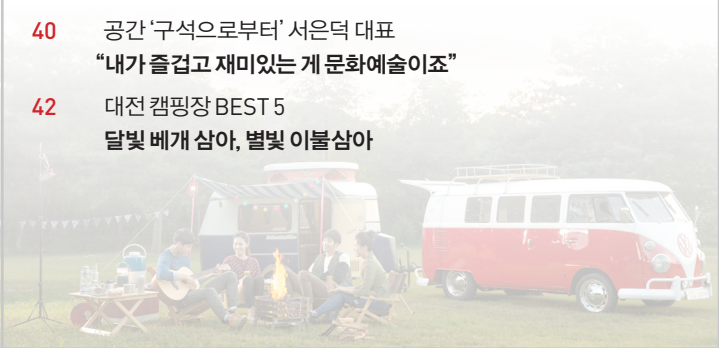
- 26 북부여성가족원
여성 창업가를 응원합니다
- 29 여성계 활동 이모 저모

함께하는 생각

- 32 영화 ‘콘택트’와 ‘컨택트’ 속 여성 과학자의 저력
‘그녀들’처럼, 소통하고 연대하라
- 35 천연 노화방지제, 타액
- 36 나는 마트대신 부동산에 간다

여우야, 놀자

- 38 핸드메이드 자외선 로션
더위에 지친 내 피부를 부탁해
- 40 공간 ‘구석으로부터’ 서은덕 대표
“내가 즐겁고 재미있는 게 문화예술이죠”
- 42 대전 캠핑장 BEST 5
달빛 베게 삼아, 별빛 이불삼아



기획대담

청년, 청춘에 대해 말하다

“일자리에서 ‘살자리’로
넘어가는 정책 전환 필요”

지금의 청년세대를 우리는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88만원 세대를 지나 N포세대, 달관세대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이런 신조어들은 하나 같이 청년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나타내는 말이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인문대 출신 90%가 논다는 ‘인구론’, 문과라서 죄송하다는 ‘문송’ 등 취업의 문턱에 좌절하는 인문대생, 취업은 했는데 ‘야근의 굴레’에 시달리는 공대생, 언제 합격할지 모르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 ‘폐인’이 되었다는 공시생. 이렇듯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절박함과 절실함이 커져가는 시점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지난 5월 12일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생각을 듣고자 도룡동의 한 카페에 자리를 마련했다.



박노동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김진한
(주)다른코리아 대표



황은주
청년고리 대표



윤정성
대전청년네트워크 위원장



권인호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청년활동지원팀장

00

청년문제에 대한 담론이
청년에서 시작되어서 확장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유행어처럼
만들어지고 소멸되는 게
안타까워요.

00

박노동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대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은 미래
이상이자 시대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라
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우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시점에 청년을 둘러싼 핵심이슈, 일자리 정책에 대
한 생각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자리를 마련
했습니다.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진한 (주)다른코리아 대표
저는 대전에서 다른코리아라는 IT서비스 개발 및
교육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전충청스타트업
기업가모임(RTM)과 대전대학창업동아리연합회
에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스타트업 창업가로서 성장
과정에 있는 청년입니다.

황은주 청년고리 대표
저는 청년네트워크 ‘청년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
다. 청년고리는 공유공간이나 쉼터하우스와 같이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커뮤니티를 만드
는 일을 합니다. 동시에 청년문제를 연구하면서 목
소리를 모아서 정책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윤정성 대전청년네트워크 위원장
저는 대전시에서 발족한 대청넷(대전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청넷은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죠. 또한 청년 커뮤니티 연합 ‘모이슈’에서
공익적 사업 운영 및 문화생활 공유를 돕고 있습
니다.

권인호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청년활동지원팀장
저는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청년활동지원팀
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년활동지원팀은 마을
공동체 지원, 공유네트워크 및 청춘다락 운영 등 각
사업에서 창업, 공유공간 등 청년 중점사업들을 모
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설됐어요.

박 요즘 청년세대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조어가 굉장히 많죠. 3포 세대에서 N포 세대,
달관세대까지. 이런 신조어들이 생겨나는 이유와
내포된 문제는 무엇일까요?

윤 신조어들이 대부분 비관적이지요. 좋아하지 않
는 문구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어
요. ‘젊으니까’라는 이유로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
하지만 이전의 청년세대와 달리 현재의 청년세대
는 단편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흔들리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황 청년세대에서 졸업-취업-결혼이라는 과정
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사회진입 기회를 얻지 못하
고 있죠. 따라서 다방면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
다고 봐요. 아쉬운 점은 청년세대를 지칭하는 말
들이 언론이나 기성세대 등 타자에 의해 규정되
고 있다는 점이에요. 청년문제에 대한 담론이 청
년에서 시작되어서 확장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유행어처럼 만들어지고 소멸되는 게 안타까워요.

권 맞아요. 청년들은 스스로를 정의하지 못한 채
‘88만원 세대’와 같이 타인에 의해 규정된 용어에



어렵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도전을 했으면 해요.

“너의 일이 되면 재미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공동체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해보는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움츠려 있지 말고 작은 일에도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낮은 곳에서부터 무엇이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죠. 따라서 공동체, 조직, 모임 등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집단 안에서 자신을 정의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김 청년들이 스스로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고,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면에는 주변에서 청년들에게 무엇을 잘한다고 얘기해 주기 보다 표준화 되어있는 학벌, 학점 등 스펙만 보는 사회구조가 청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뺏은 것 같아요.

박 공동체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해보는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청년세대가 갖는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요?

윤 적극적으로 관심을 쏟거나 환경을 이기고자 하는 주체적 의지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하니까 하는 시험, 취업 준비 등을 하면서 흘러가는 대로 가는 청년이 많죠. 새로운 방향의 활동, 취업, 창업 등을 모색하기보다는.

권 높은 실업률, 고용 불안정 등 청년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죠. 최근에는 심리적 안정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요. 자존감을 갖고, 집단에서 소속감을 느끼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감 떠안은 채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거죠.

황 제일 큰 문제는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바로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2015년 20대 빈곤율은 40대 빈곤율을 처음으로 추월한 뒤,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학자금에 주거비, 생활비까지 감당하기 위해 알바를 하다 보면 자기계발 시간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좋은 일자리를 얻기 힘들고요. 빈곤이 고착화되고 있죠.

박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공시생의 비율도 높아지는 거겠죠?

황 통계에 의하면, 한해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 중 절반이 공무원 준비를 선택하죠. 그 이유가 소득이 안정적이고 시험을 통한 선발로 기회가 공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김 주변에서 의외로 가장 큰 위험으로 부정부패를 꼽더라고요. 무엇을 하더라도 눈감아 주는 기성세대와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보는 사회구조 말이지요. 또 한 가지는 실패에 대한 인식이에요. 얼마 전 조카와 본 애니메이션에서 실패를 하니까 박수를 쳐주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고 깨달았죠. 이런 교육을 청년들에게 하면 어떨까.

박 청년문제를 단편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네

요. 그 중에서도 경제적 불안정과 일자리 문제가 청년을 둘러싼 핵심이슈라는 것에 모두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청년들은 주로 일자리 관련 정보를 어떻게 얻고, 얼마나 알고 있나요?

윤 가장 큰 정보창구는 학과 선배죠. 학과 선배들이 취업 준비를 한 루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박 고용센터, 취업정보기관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드문가요?

황 고용센터에서는 고용상담 받는 정도예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취업설명회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 창업 정보는 창업넷,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조경제타운에서 운영하는 지역별 창조경제센터 등 이런 곳에서 주로 얻어요. 하지만 가장 큰 정보처는 휴먼 네트워크링이에요. 창업 관련 모임에서는 정보와 함께 노하우도 공유되기 때문이지요.

권 윤 위원장님이 말하신 것처럼 대부분 선배가 추천하거나 선배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취업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좋은 선배나 인적 네트워크가 탄탄한 친구들은 쉽게 정보를 얻는 반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어려운 경우를 많이 보죠.

황 하지만 단순히 개인 간 정보 비대칭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중앙이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도 청년들이 알지 못해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박 지자체에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대전시도 올해 청년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전시가 실시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 및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새롭게 시행하거나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얘기해주세요.

윤 대전시에서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청년 취업 희망카드' 정책의 경우 청년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교통비, 면접비 등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카드 형태로 6개월간 지급하는 정책이에요.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다만 한정적 기간을 적절히 활용해야겠죠. 이외에 대전시에서 추진 및 계획 중인 정책에는 청년들과 대화가 더 필요한 부분도 많아요.

황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정책이 아쉬웠던 점은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기관, 기성세대를 지원하는 정책이 대부분이라는 점이에요. 그나마도 질을 논하기 민망할 정도로 적은 예산이 배정되었죠.

윤 청년 정책 예산 비율이 지난해 보다 증가해서 올해는 약 1% 정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정책의 질을 논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지요.

황 사실 최근까지 청년세대는 주요 정책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윤 위원장님 말하신 것처럼 청년 취업 희망카드 사업은 긍정적으로 봐요. 기존의 간접지원에서 직접지원으로 바뀐 첫 사례니까요.

김 창업에 있어서도 직접 지원 정책이 필요하죠. 광주에서는 최대 5천만원까지 청년 창업가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보증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호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기업연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대상

을 연령별, 성별, 학과별 등 다양한 분류로 세분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권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에 청년의 실태나 욕구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나 연구적 바탕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무엇을 필요로 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과정 없이 진행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황 일자리에서 '살자리'로 넘어가는 정책 전환이 필요해요. 작년에 대전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었죠. 이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거나 일자리 정책에만 국한되지 않고 청년이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해요.

박 그렇다면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 외에 청년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거나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황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한 시민으로서, 이슈가 무엇이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대안에서는 청년들 스스로 정당을 만들어서 이슈를 생산하고 바꾸어 나가더라고요. 저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윤 이야기 할 때 중요한 것은 이슈별로 모이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핵심에 대해 얘기하고 서로의 의견을 인정해주는 자리, 그 자리에 이슈에 적합한 멘토를 초청하는 것도 좋고요.

김 청년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정책이나 사례를 학습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성격은 다르지만 모이면 시너지가 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청년들이 미래의 청년이 될 10대들을 위한 멘토가 되어 주는 교육이나 행사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권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개인의 문제를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본다면 이것을 지역 문제나 정책으로 연계시켜 넓은 의미의 정치로 봤으면 좋겠어요. 청년 개인의 문제 안에서 지역적 차원의 청년



문제를 찾아보는 거죠.

박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 저도 창업하면서 어려운 점 많았는데요. 이제야 조금의 성과가 보여요. 조금씩 성과를 내는 건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낮은 곳에서부터 무엇이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창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의리'를 지켜야 함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황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누구였어도 힘든 사회적 환경이니까요.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움츠려 있지 말고 작은 일에도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윤 지금의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못 살 위험에 처해있는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어렵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도전을 했으면 해요.

권 "너의 일이 되면 재미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관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참여하고자 노력하면서요.

박 이번 대담을 통해 청년의 현실과 실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듣게 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담을 마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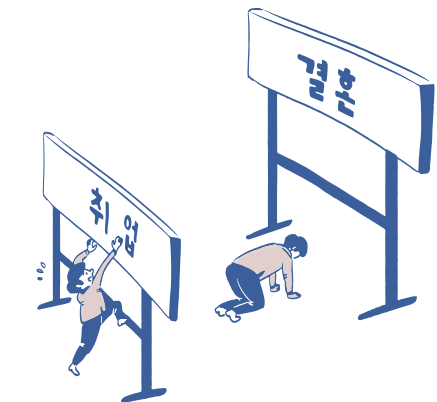
청년, 사회 문턱에 걸려 넘어지다



글 · 천주희_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아직은 견딜만하다며 마트, 아파트, 상가 청소용
역으로 출근하는 부모를 바라보며 도서관, 학원
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이, 1, 2년 마다 계
약직을 전전하고, 겨우 정규직으로 취직했지만
몇 달 만에 회사경영난으로 권고사직이나 임금
삭감을 제안 받는 이, 밀린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취직을 하더라도 30대 중반이 되어서도 결혼을
주저하는 이에게 사회는 말한다. “당신의 꿈은 무
엇입니까?”, “꿈을 위해 투자하세요.”라고,

소박한 꿈이 있다면, 그저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인정받는 것인데 그
마저도 어렵다. 꿈을 꾸기보다 포기하는 법을 먼
저 배우고, ‘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수록 사회 밖,
주변부로 밀려나는 두려움을 체득하며 자란다.
자기 밥벌이 하며 사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노동시장에 입장하기도 전부터 치러야하는 것들
이 많다. 비싼 대학등록금, 좁은 취업문, 부모 부
양까지. 모두가 달리는 허들 경기장에서, 앞 사람
이 넘어지니 그 쓰러진 허들에 나도 걸려 넘어진
다. 일어나서 다시 달리고, 또 넘어지고, 그러다 얼
떨결에 당도한 결승선. 그런데 환대는커녕 ‘낙오
자’, ‘탈락자’라며 다시 돌려보낸다. 이것이 오늘날
‘청년’이 마주한 사회의 얼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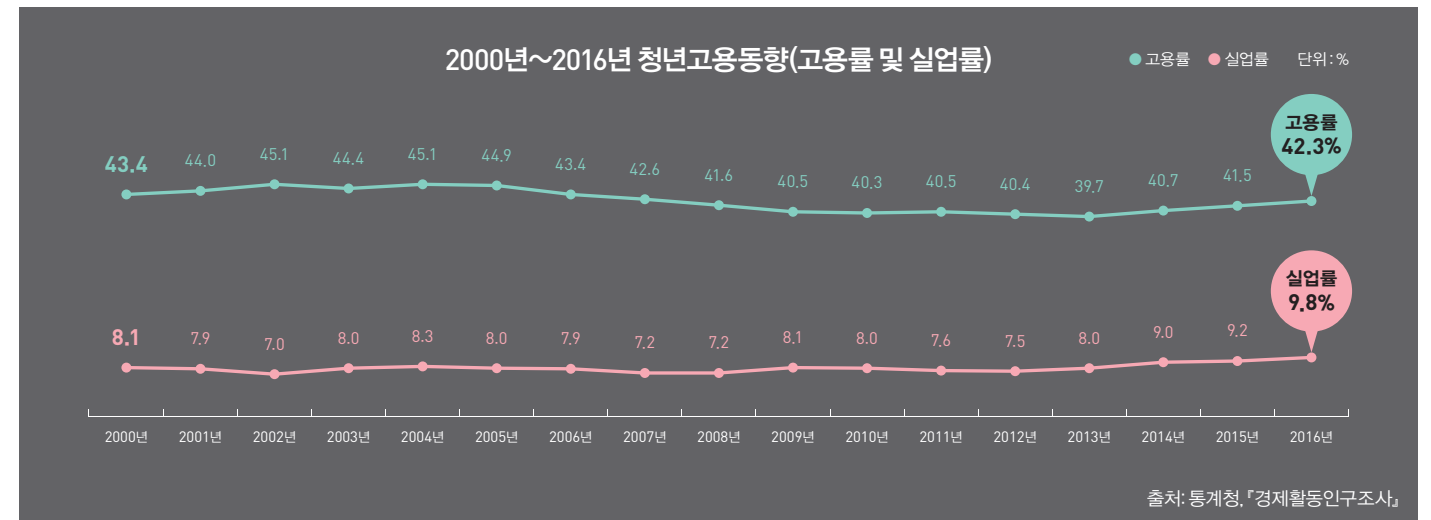


*IMF 시기라고 볼 수 있는 1998년~2000년 1분기 청년실업
률은 1998년 11%, 1999년 14%, 2000년 10.1%로, 2001년
이후 10% 이하로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10%대를 넘어섰다.

청년 실업률, 지표에 가려진 노동과 빈곤
해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실업
을 할까.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청년 고용동향』
지표를 보면,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평균 9.8%였
다. 전체 실업률이 3.6%대인 것에 비하면 약 2배
~3배가량 높은 수치이다. 여기에 더해 2016년 1
분기 청년 실업률만 놓고 본다면, 사태의 심각성
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1분기 청년 실업
률은 11.3%로, 이 수치는 1998년~1999년 사이
IMF 이후 청년실업률이 최고점을 찍었던 때와 유
사하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청년들이 경험
하는 실업에 대한 체감은 IMF 시기 못지않다.

♫
청년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일은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노인 등 노동의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
한편, 지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고용률과
실업률을 보면 악어 입을 연상시킨다. 한 때 일본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쓰였던 악어 입 그래프
는 2002년 이후 한국의 청년 고용과 실업 지표에서
도 나타난다. 고용은 줄고, 실업은 는다. 갈수록 격
차는 벌어지고, 악어입 속에서 위태롭게 고용과 실
업을 오가는 청년들을 상상해보라. 어떤가. 여기에
는 악어새와 같은 공생의 낭만이 자리할 틈이 없다.
그런데 이 지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궁금증이
생긴다. 청년고용지표에서 상정하는 청년(만 15세
~29세)은 10대 후반에서 20대인데, 어쩌서 이들
의 실업률은 높은 걸까? 이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하
지도 않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까? 어디
에서 무엇을 하며, 긴 시간을 버티고 있는 걸까? 이
동네, 저 동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영화관, 거
리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로 넘쳐나는데
그들의 노동과 빈곤은 왜 지표에서 볼 수 없을까?



청년정책 과제와 방향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하며, 청년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청년들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
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청년인턴을 확대한다
는 내용이다. 그러나 문제는 일자리 확대 정책이
라는 것이 대부분 일시적으로 임금을 보조하는
형식이며 비정규직이나 인턴 등 불안정한 일자리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
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
으며, 지원금 몇 십만 원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할
때까지 버텨야한다.

한 사람이 겪는 경제적 빈곤은 단순히 일자리
가 생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빈곤한 사람이
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노동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을 때 가치를 얻을 수 있다. 바리
스타 양성과정을 통해 커피숍에 취직한 들, 청년
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 청소년 등 각 연령에서 양
성되는 바리스타와 경쟁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삶
은 노동시장에서 버는 임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를테면 먹거리와 건강, 주거, 이동, 관계 등 다양
한 차원에서 사고해야한다. 그런데 청년지원 정책
은 대부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일차원적인 사고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사회 밖 청년’에 대한 우려와 청

년빈곤이 언론에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사회구성원이나 복지 영역 바
깁에 있던 청년세대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식
하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4
년부터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들과 청년정
책을 만들기 시작했고,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
다. 대전시에서도 지난 해 대전청년조례안을 만
드는 등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
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정부에서 놓치는 청년정책을 지역사회에서 고
민하는 일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청년’에 대한 상
상은 지역, 행정, 젠더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수도권에서 만들어진 청년정책이 지역으
로 확산되는 한계가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청년
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고민은 삭제된다. 또한
대부분 청년에 대한 이미지는 남성, 미혼, 대학생
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청년에 대한 이미
지는 청년정책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더해 일자리, 창업 중심의 정책들
은 일을 하지 않는 청년들, 더 자세히 말하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배제시켜왔다.

청년들이 참여해서 청년정책을 만들지만, 정
책 좌담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자
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대학생이거나 활동가

여야만 한다. 일터에 있는 청년들의 경험이 접근
성에서 차단되는 경우가 많다. 청년정책에서 가
장 큰 문제는 청년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가
족중심 복지시스템으로 인해 부모와 독립을 한
경우에도 부모의 소득을 증빙해야 한다. 각종 서
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치고, 부모와 독립을
한 경우에도 늘 행정에서는 가족과 개인 문제로
소환된다. 그러다보니 필요한 정책이 만들어져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며 사각지대가 발
생한다.

청년은 독립된 주체로 이미 지역사회 구성원이
다. 가족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또한 청년은 단일
화된 범주가 아니다. 특정 세대가 처하게 된 정치
경제학적 조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청년의 전부
가 되어서는 안 된다. ‘청년’ 안에는 지역, 젠더, 연
령, 가족의 결속력 등은 저마다 다른 처지와 조건
이 존재한다. 청년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일은 청
년세대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노인 등 노동의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좋은 정책이란, 어떤 대상이 복지나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일이 아
니라, 개개인이 지속가능성을 꿈꾸고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와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다. ‘함께 살
자’고 손을 내밀고, 사회적 울타리가 되어 무엇이
든 해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다. **W**

노동사회의 청년은 왜 단일한 범주로 인식되는가?

글 · 류유선_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신스틸러는 청년들이 되고 있다. 문제는 청년들의 낮은 취업률과 높은 실업률, 즉 경제활동으로 수렴되고 있다. 이들의 낮은 경제활동 혹은 불안한 경제적 지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생애과정의 기획이 포기되거나 유예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과 경제적 독립, 그리고 사회재생산의 기본단위로 인정받고 있는 ‘가족’의 형성과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불안한 경제적 지위는 결혼과 출산을 통해 이뤄지는 생물학적 재생산과 지역과 국가를 유지시키는 사회적 재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요한 사회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청년문제가 이렇게 해석되면, 다음 단계는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라는 정책영역이다. 포인트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구조의 문제가 왜 청년문제로 수렴되는가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지점이 두 가지가 있다. 청년의 범주와 청년문제 프레임에 대한 것이다.

첫째 “청년이 누구냐?”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청년’을 1)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2)성년 남자로 정의하고 있다. 즉 한국어의 상징체계에서 ‘청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이 완성에 이른 성인 남성을 대표하게 된다. 또 담론이 ‘어떤 의미나 관념을 넓은 뜻에서 소통의 이야기로 바꾸는 행위나 그 과정 또는 체계’(박만준 옮김, 2002:2), 즉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는 체계라고 한다면 ‘청년담론’은 건강한 성인 남성을 위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특정 대상으로 단일화된다.

대전청년의 다양성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을 ‘만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한다. 학력, 계층, 성별, 문화, 국적 등 청년 내부의 다양성은 비가시화된다.

대전지역에는 젊은 외국인이 많다. 결혼이주민이나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범주 외에 ‘유학생’이라는 젊은 청년이주민도 있다. 대학교가 많은 교육도시라는 특징을 갖는 만큼, 외국인학생이 많기 때문이다. 2014년 기준 대전 체류등록외국인 전체 15,658명 가운데 청년이 10,305명으로 65.8%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율은 7개 특광역시 가운데 1위이다. 지역 청년문제의 프레임 속에 현재 지역사회에서 함께 거주하며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또 다른 청년의 모습이다.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배려와 정책도 요구된다.

청년빈곤 문제는 가장 시급해 보인다. 2016년 대전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50,464명 가운데 청년 수급인구가 11,285명으로 22.4%를 차지하고 있다. 19세 이하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에게 일자리가 가장 시급한지 혹은 학업을 마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한편 청년 장애인도 있다. 2016년

대전 청년 장애인 등록현황은 전체 70,873명 가운데 6,286명으로 8.9%를 차지한다. 이들의 정책적 이해와 욕구가 청년담론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자세히 보아야 한다. 학력도 다양하다. 2015년 대전지역 구직자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1%), 중학교 졸업(3%), 고등학교졸업(30%), 전문대졸업(26%), 대학교졸업(38%), 대학원졸업이상(2%)로 나타났다. ‘대학교’와 ‘대학생’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청년담론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전문대 졸업생들은 위치와 요구는 비주류화된다. 이들 비율은 청년의 60%를 차지한다. 누가 청년의 대다수인가에 대한 답은 수정되어야 한다.

둘째 “청년문제가 누구의 관점에서 ‘왜’, ‘문제’로 인식되나?”이다. 청년들이 과연 일자리를 첫 번째 문제로 생각하고 있을까? 만약에 청년수당,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을 통해 기본적인 생존이 보장된다면, 일자리 문제가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인가? 청년들의 꿈이 공무원이 될 것인가!

사회적 구조가 개인들의 사회적 행위가 이뤄지는 공간과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동시에 개인들이 사회구조에 순응하며 행위하는 동안에만 사회구조가 유지·재생산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회구조와 개인행위라는 이분법을 극복하고 사회적 현실과 맥락 속에서 개인의 주체성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즉 청년들이 일 자리를 가져야한다는 사회적 현실과 맥락은 누구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담론인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생존을 임금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이 직업으로 확인되는 노동사회에서 실업은 정체성의 무너짐, 사회적 비존재로 해석된다.

청년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노동에든 일단은 종사해야만 시민으로 인정받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인간의 노동을 통해 유지되는 자본논리를 내면화한 개인들의 사회가 청년노동을 필수로 요청하는 것이며, 결국은 ‘노동할 권리’라는 매커니즘을 통해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오늘도 좁은 고시원에 앉아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청년들이 ‘노동할 권리’가 있다면 반대로 ‘노동하지 않을 권리’도 마찬가지다.

♫
청년들이
‘노동할 권리’가 있다면 반대로
‘노동하지 않을 권리’도
마찬가지다.
♫

지역차원의 노력: 다양한 청년들의 내러티브
청년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그 대화는 연령, 학력, 국적, 장애, 성별 등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이다. 청년은 하나의 범주로 대상화되지 않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과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의 사회적 위치가 다르듯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의 고민의 지점은 다를 수 있다. 청년남성과 청년여성의 관점과 이해관계 또한 동일할 수 없다.

청년들과의 대화는 이들의 가치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해주는 것이다. 청년들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발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이들을 지지하고 공감을 표하는 연대의 노력도 필요하다. 각자의 위치에서 청년과 청년여성이 경험하는 고민을 듣고, 그 고민들이 교차하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발화할 수 있는 공간과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지금 지역 사회가 할 일이다. 대화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 평가하거나 충고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대화는 각자가 자신의 고유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진리에 대해 표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개별적 진리가 모여서 전체의 진리를 구성한다”(홀거 하이데, 2000: 213). 과연 우리 청년과 청년여성들이 원하는 것이 ‘일자리’인가? 아니면 잠시 스스로를 되돌아볼 여유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이들의 이야기들을 모을 시간이다. [W](#)



참고자료
대전광역시(2016), 『대전광역시 청년세대 분석』.
존 스토리(1996), 『문화연구의 이론과 방법들』, 박만준 옮김, 2002, 경문사.
홀거 하이데(2000), 『노동사회에서 벗어나기』, 강수돌 외 옮김, 2000, 박종철 출판사.

♫

청년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그 대화는 연령, 학력, 국적, 장애, 성별 등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이다. 청년들과의 대화는 이들의 가치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해주는 것이다.

♫

당신에게 걸그룹은 어떤 존재인가요?

글 · 박효원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일이 연예인 걱정이라고 한다. 염려에도 불구하고 그 쓸모없다는 연예인 걱정 좀 해야겠다. 걸그룹 소녀시대의 큰 성공은 걸그룹 전성기를 이끌며 대한민국을 소녀들의 시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걸그룹은 우리가 여성을 어떻게 소비하는 지 보여주는 최전선에 서 있다.

걸그룹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생각해보자. 아마도 '청순한 하양고 무해한 소녀' 이미지가 떠올랐을 것이다. 이는 미디어가 걸그룹을 통해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모습이다. '청순하고 무해한 소녀'의 걸그룹은 보통 밝은 옷을 입고 쾌활한 표정으로 지고지순한 첫사랑을 노래한다.

지난해 큰 사랑을 받았던 걸그룹 트와이스의 노래 가사만 보아도 '청순하고 무해한 소녀'가 잘 나타난다. 여자가 쉽게 맘을 주면 안 된다며 조금 더 힘내라는 'Cheer up'으로 시작해, 내 맘을 몰라주는 남자가 너무하다는 'TT'를 지나, 'KNOCK KNOCK'에서 내 맘이 열리게 쿵쿵 두드려주길 바란다. 트와이스의 노래는 남성에게 사랑받고 싶은 '수동적인 여성'만을 그린다.

프로듀스101으로 인기를 얻은 걸그룹 I.O.I는 '너무너무너무'에서 날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면 고백해주길 바란다고 노래한다. 인기 걸그룹 레드벨벳은 '러시안룰렛'과 'Rookie' 뮤직비디오에서 끊임없이 '조점 없고 인형 같은 소녀'의 모습을 묘사한다. 모두 하나같이 수동적이고 남성에게 무해한 모습의 여성이다.

문제는 이 수동적이고 무해한 소녀가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걸그룹 멤버들을 남성

결국 걸그룹은 한국 사회가 여성을 소비하는 방식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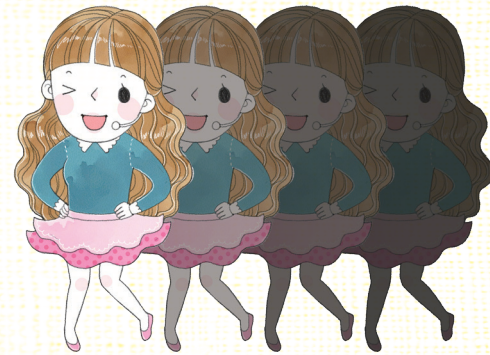
♀♀

의 사랑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로 인지하고 상품화한다. 걸그룹 여자친구 몰래카메라 사건이 그 예다. 한 남성 팬이 팬 사인회에 안경으로 된 몰래카메라를 반입해 촬영하다가 적발된 이 사건은 큰 파장을 낳았다.

이 남성 팬은 걸그룹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대상임을 인지했기에 몰래카메라라는 범죄를 서슴없이 실행했을 것이다. 또한 걸그룹을 돈을 주고 소비하는 상품으로 인지했기에 문제로 생각지 못했다. 걸그룹을 상품으로 소비하는 것은 빈번하게 나타난다. 걸그룹에게 본인이 요구하는 행동을 해주지 않자 '돈 벌기 싫냐'고 말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심각한 것을 상품화를 넘어서 걸그룹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이다. 걸그룹 멤버들의 주체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은 배제한 채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소비하는 것이다. 걸그룹 멤버를 상대로 한 성희롱은 일상에 가깝다. 걸그룹 나인뮤지스는 축제에서 본인의 속옷을 촬영하는 남성을 제지하기도 했다.

이는 단순히 걸그룹을 소비하는 방법에서 끝나지 않는다. 미디어는 걸그룹의 모습을 이상



적인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표현한다. 아이돌의 뜻이 '우상'이라는 점을 떠올려보자. 10대, 20대 여성들에게 걸그룹은 우상으로 새겨진다. 미디어와 남성들은 걸그룹이 그리는 수동적인 여성상에 여성들이 맞추길 유도한다.

결국 걸그룹은 한국 사회가 여성을 소비하는 방식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여성을 주체성 없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고 상품화하며 성적 대상화 한다. 이는 다시 말해 한국 사회의 젠더권력을 나타낸다. 남성은 미디어를 통해 수동적이고 무해한 여성상을 만들어 내고 이를 현실에 적용해 소비한다.

대학가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성희롱 단톡방 고발, 잇을 만하면 나타나는 회사 내 성추행, 매일 뉴스를 장식하는 성폭행 사건은 모두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성을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남성만 바라는 수동적인 존재, 성적 대상화해도 문제없을 상대로 생각한다. 그렇기에 여성을 향한 성범죄는 끊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당신에게 걸그룹은 어떤 존재인가? 당신은 여성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가?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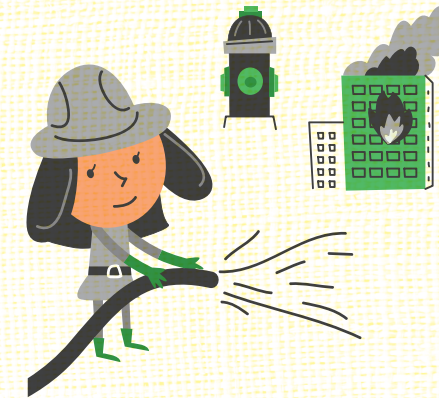
소방관이 되고 싶은 여자, 간호사가 되고 싶은 남자

글 · 이용현 한밭대학교 화학공학과 석사과정

지난 5월 9일 치러진 제19대 대선은 그야말로 사회 혼란 속에 우리 사회의 구원투수를 뽑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대선이 치러지기 전 각 당을 대표 하는 구원투수 후보 5명이 TV 앞에 서서 며칠에 걸쳐 토론을 펼쳤다. 5명 모두 서로 다른 공약을 가지고 토론을 펼치고 있지만 혼란스런 우리 사회를 구원해야 한다는 목적은 같았을 것이다.

이런 공방 속에서 필자의 뇌리를 뜨겁게 달궜던 한 후보의 말이 잊히지 않는다. 후보는 자신을 스트롱맨(strongman)으로 표현하며 "남자와 여자가 할 일은 하늘이 정해주었다. 그렇기에 하늘이 여자에게 정해준 일인 설거지는 여자가 해야 한다"는 말을 언급한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짧은 순간에도 필자는 지금이 2017년인지 1960년인지, 현실에서 TV를 보는 것인지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물론 추후 그 후보가 강한 남자를 빗대어 말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농담 섞인 말을 했다고 해명과 사과를 했지만 여성단체 및 인권단체에 못매를 피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 스트롱맨 사건 이후 해당 후보의 지지율은 두 배로 올랐다 점이 믿을 수 없었다.

필자는 이 지점에서 남자와 여자가 할 일은 하늘이 정해주었다는 말을 반박하고 싶다. 요즘은 남성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경찰, 소방, 군인 등 각종 분야에서 여성들이 진출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훨씬 많은 여성들이 실무에서 활약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 업무 중 과학수사 파트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세심한 관찰력으로 사건해결에 두각을 보인다고 한다. 과학수사 업무 특성상 변



남성과 여성의 일은 아무도, 그 누구도 정해주지 않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떠한 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직업을 정하는 데 성별은 중요하지 않고 직업 외에도 모든 일에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



사체를 많이 봐야 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들 못지않게 번사체를 다루고 이에 타살의 혐의점이 있는지 여부를 세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남성들은 어떤가? 여성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간호사, 유치원 선생님, 헤어디자이너 등 여러 분야에서 남성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그 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힘을 필요로 하는 간호 직종에서는 여자 간호사 보다 남자 간호사를 선호하는 병원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얼마 전 아빠 같은 모습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남성들이 유치원 선생님이로 선호 된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남성과 여성의 일은 아무도, 그 누구도 정해주지 않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떠한 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직업을 정하는 데 성별은 중요하지 않고 직업 외에도 모든 일에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단편적인 비교를 했을 뿐이지만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가두었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극명한 사실이다. 비록 아직까지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은 존재하고 있다. 아직도 기업에서는 남성을 선호하고, 육아 휴직을 하는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본다면 말이다.

문득 어떠한 고정관념도 없는 딸 아이 앞에서 나의 편견이 드러난 적은 없었나 반성했다. 아빠의 입장에서 훗날 내 딸이 누구 못지않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부터 인식을 바꾼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 순간 딸의 얼굴이 보고 싶어졌다. **W**

새롭게 바뀔 청춘과 공유의 공간
‘청춘다락’으로 오세요



둔산동, 은행동만큼 익숙하지 않은 동네, 중동.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대전역과 목척교 그 사이에 위치한 작은
동네가 바로 중동이다. 대전지역 전체의 70%에 달하는
450여 개의 인쇄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인쇄골목,
한때 주부들이 즐겨 찾던 건어물거리,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한의약특화거리가 어깨를 맞대고 있는 동구 중동.
이곳은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발길이 붐비던 동네다.



대전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유동인구가 오
가며 쇼핑과 외식, 여가를 즐겼던 은행동이 가까
이에 있었고 대전의 쇼핑타운을 형성했던 중앙대
파트와 홍명상가, 영화표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섰던 신도극장과 아카데미극장도 걸어서 5분 거
리에 있었다.

옛 신도극장 안쪽에 자리 잡은 옛 중앙동 주민
센터는 지난 1994년 지어진 뒤 동구 중동주민자
치센터, 동구보훈회관으로 사용되다가 동구보훈
회관이 이전하면서 지난 2013년 5월부터 빈 공간
으로 남아 있었다. 원도심의 쇠락과 함께 사람들
의 기억에서 희미해진 옛 중앙동 주민센터가 청년
및 예술인들의 거점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 원도
심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 공간을 청년과 예술인들의 활동
거점 공간인 ‘청춘다락’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해 8월 동구로부터 매입,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청년 거점공간 조성을 통해 침체된 지역에 활력
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1,343㎡ 규모로, 오는 9월 입주단체들
이 들어올 예정이다.

1층에는 작은 미술관과 카페, 공유서가가
조성되어 있고, 공연·회의·교육 등 다양한 용
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2층은 사회적자
본지원센터 사무실과 교육장, 상담실, 회의

실, 공유주방으로 구성됐다.

3층은 다양한 청년층의 협업과
창업, 청년공동체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코워킹
및 활동 공간으로 재구성됨으로써 지역적 특성
을 바탕으로 청년과 예술인, 지역 주민들의 거점
공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하 1층은 헬스장으
로, 중앙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다.
특히 1층에 조성된 작은 미술관은 오랜 시간 방치
됐던 유휴공간을 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좋은 사
례로, 올해 2월 먼저 개관했으며, ‘이색적’인 전시
를 통해 주민들과 문화예술을 공유하기 위한 공간
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대전시와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2월 24
일부터 5월 말까지 청년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지
역사회참여를 돕는 ‘아무일 청춘다락青春多樂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아무일 청춘다락青春多樂
프로젝트’는 원도심 청년거점공간의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들과 문화예술(메이커, 영상, 문화,
미술 등)분야 전문 멘토들이 함께 원도심과 중동
에 활기를 불어넣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14주간의 협업 프로젝트이다.

총 10팀을(개인 및 단체) 선정해 프로젝트를 진
행했으며, 무엇보다 공유공간 ‘청춘다락’의 기획에
참여하게 된 이들이 실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청
년들이란 점이 큰 의미가 있다. 매주 정기모임을 갖

고 청년활동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디자
인씽킹(design thinking) 강의와 지역탐방, 워크숍
등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4월 22일에는 ‘청춘다락,
미리보기’를 개최해 박석신 작가와의 만남, 사진전,
버스킹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었다.

청년 공동체들은 ‘아무일 프로젝트’를 통해 전
문 멘토링 및 프로젝트의 성과와 결과물을 공유
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해 이해했으며, 참여팀 간
신뢰와 우정이 쌓이고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 9
월에 개관하게 될 청춘다락은 6월 말~7월 중 입
주팀을 모집할 계획으로 청년들의 활동거점이자
청년 예술가들의 공간은 물론, 주민들이 자주 찾
는 지역커뮤니티 허브공간으로 새롭게 변신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W](#)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선화로196번길 48

우리동네 청소년 문화 아지트

평송청소년문화센터

평송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며,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교육 중심의 수련활동 체제를 구축한다. 그리고 청소년 역할 강화와 참여 확산을 추진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공간이다.



대전시 서구 둔산대로 201 둔산대공원 내에 위치한 평송청소년문화센터는 대전 시민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곳이다. 이 청소년 문화센터에 평송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1955년 대전에서 처음으로 대전 도매시장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했던 평송 이남용 선생이 평소 근검절약을 미덕으로 삼고 가꾼 전 재산을 1990년 대전광역시 청소년 회관 건립 기금으로 기탁하면서 청소년문화센터의 설립 기반을 마련한 것이 시작이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 평송청소년문화센터는 부지 45,415㎡, 연면적 11,216㎡로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시설로는 대극장, 소극장과 도자기실, 다도실, 북카페,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다. 센터 인근에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연정국악원, 생태박물관, 한밭수목원, 천연기념물센터 등이 문화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대전청소년교육연구원이 위탁 운영 중이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청소년 활동 및 문화 교육, 자유학기제 지원 등을 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은 범위에서 대전 시민의 문화 예술 활동, 생활체육 활동, 평생교육 등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오후 10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W](#)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방향

- 1 청소년의 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 활동 공간 구축
- 2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 및 자유학기제의 적극적 지원
- 3 청소년의 진로체험 및 비교과 영역 체험학습 지원
- 4 청소년인중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5 시설이용 시민에게 최대의 편의제공
- 6 지역공동체내의 다양한 관계형성 및 협력

청소년 활동

청소년 활동 및 문화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리더십 함양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동시에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지역 초, 중, 고등학교와 연계해 방과 후 시간에 자기계발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다목적실을 청소년 동아리 활동실로 병행하여 교육 장소 및 동아리실의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동성 있게 운영한다.

- 1 청소년어울림마당
- 2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 3 청소년동아리 지원
- 4 자유학기제 진로활동
-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할 서바이벌 편아처리' 등



청소년어울림마당



자유학기제 진로활동(스튜어디스 체험)



할 서바이벌 편아처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초생활수급대상·한부모·장애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활동·복지·보호·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교육비 절감 및 방과 후 비행노출을 예방한다.

- 1 상담 및 개별문제 지원
- 2 청소년 생활지도 및 관리
- 3 전문체험활동 운영
- 4 학습지원(기본공통)과정 운영
- 5 특별지원 프로그램 운영



뉴스포즈



텃밭 가꾸기

평생교육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자기계발 및 취미 활동 지원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건전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취미, 교양, 문화예술, 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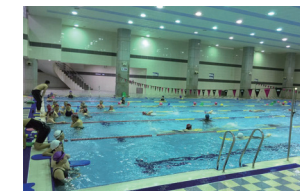
- 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양질의 프로그램 도입
- 2 저녁시간을 활용하여 직장인, 주부대상의 프로그램 개설
- 3 평생교육 동아리를 구성해 또 다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 4 주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오케스트라

생활체육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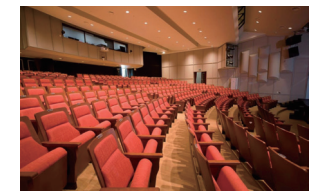
수영장, 탁구장, 야외 농구장, 무용실 등 신체활동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청소년들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여가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건강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수영장

문화공연 시설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대극장, 소극장,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계층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청소년 스스로 만들어 내는 학교축제를 포함해 가족뮤지컬과 각 분야 예술인들의 공연 활동을 지원하는 대전 대표 전문 공연장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대극장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201

전화 | 042-480-1622~3 팩스 | 042-480-1699

이메일 | pyongsong@hanmail.net

홈페이지 | pyongsong.com

모자가정의 따뜻한 보금자리

루시모자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루시모자원은 올해로 설립 63주년을 맞이했다. 1954년 6.25전쟁 속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남겨진 어머니와 아이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식을 위한 모성에 하나로 목숨을 부지하며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애쓰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애절하게 바라본 동양선교회의 열마 길보른, 루시 선교사 부부가 이들을 돕기 위해 80평의 안식처를 마련해 기증함으로써 루시모자원이란 이름으로 개원했다. 이후 사회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재는 사별, 이혼, 미혼모 한부모 모자 가정들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이다.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23번길 63
전화 | 042-256-2911
팩스 | 042-256-2912
이메일 | ruthhome@hanmail.net
홈페이지 | ruthhome.or.kr



가족앨범 만들기



미취학 오감발달

○○

루시모자원은
미혼모 한부모 모자 가정들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입니다.

♀♀



어머니 요가



안전교육

입소안내

- **입소대상** | 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 **입소절차** | 모자원 내방 또는 전화문의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입소신청서 작성) → 시군구에 입소의뢰 → 확정통보 후 입소
- **입소기간** | 입소일 기준으로 3년이며, 사정에 따라 1년 단위로 2년 연장이 가능하고 3년 만기 후 퇴소 시에는 3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원

입소안내

- **물품후원** | 생필품, 가전제품(중고포함), 아동 용품, 의류 등
- **후원금** | 하나은행 628-329234-00505 / 루시모자원

초대 박영애 원장이 추가로 기증한 토지에 1984년 정부 지원으로 3년에 걸쳐 건물을 증축하면서 현재의 루시모자원이 되었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올해 6월 대지면적 4,511㎡, 연면적 1,229.75㎡ 규모로 20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생활관을 새롭게 개축했다. 새로 지은 건물의 1층에는 사무실이 들어섰고, 2~3층은 생활관으로 조성되었다. 도서실 및 공부방과 프로그램실, 컴퓨터실 등은 기존 건물에 위치해 있다.

루시모자원은 모자가정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 실천을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 모자가정의 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아동들의 잠재적 능력 개발 및 바른 성장 지도라는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즉,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거주지 제공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도모하고, 정서적·심리적 지원으로 가정해체의 위기를 극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루시모자원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세부사업들을 살펴보면 ① 가족기능강화 및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서비스사업, ② 아동들의 잠재적 능력 개발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공부방 운영, 교육, 체험학습, 예체능 활동 등 '아동지도 서비스사업', ③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개인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 '사회심리지원사업' ④ 인권교육, 성교육, 경제교육, 자녀교육 등 생활에 필요한 소양교육과 요가 등 취미생활을 위한 '어머니 교육 및 서비스사업', ⑤ 가족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사업' ⑥ 학력취득(검정고시), 자격증 취득교육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서비스사업' 등이 있다. 또한 기관연계, 후원, 자원봉사 등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성평등 도시 대전 ‘두런두런’ 이런 일이

2017년도 상반기 대전시 양성평등위원회

대전광역시시는 지난 1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권선택 대전시장과 양성평등위원, 보건복지분야 명예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성이 함께 성장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양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여성인권보호 및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대전시 양성평등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회의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양성평등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남성육아 휴직 촉진, 북부여성가족원 취·창업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청소년 산모의 육아지원, 양성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 필요 등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되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전형 청년수당제도의 도입,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 정책의 중앙 건의 등을 설명하며 “대전이 성평등 선진도시로써 좋은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가정의 달 기념 가족축제

대전광역시는 지난 5월 5일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축제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 3,000여 명이 참여해 부스 17개로 구성된 3대家 요리왕 대회와 부스 10개로 구성된 오감만족 체험으로 진행됐다. 특히 3대家 요리왕 대회는 30개팀 90명이 참가했으며, 가정의 달 행사 취지에 맞게 조부모들이 자녀와 손자들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오감만족 체험 부스에 참여하기 위해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는 등 행사가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2017년 여성 폭력예방 직장교육

대전광역시시는 지난 4월 18일 시청 대강당에서 2017년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해 대전시 고위공직자 및 650여 명의 공무원이 참석해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폭력예방 퍼포먼스로 ‘버나놀이’ 공연을 진행해 교육에 대한 효과를 높였으며,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용감한 기러기상’을 수상하며 인권보호 및 영상 폭력에 대한 고발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이선희 감독이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

대전광역시시는 지난 4월 22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다. 대전시 거주 다문화가족 85팀 170여 명이 참여해 부부복식, 남자복식, 여자복식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가 한 조를 이룬 센터 대항 여자복식 경기를 치렀으며 종목별 1, 2, 3위에 대한 시상도 실시했다. 또한 부대행사로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참가자를 위해 클라이밍과 미술프로그램 등 자녀 돌봄 행사와 푸짐한 경품 추첨 행사가 진행됐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스포츠 대회를 통해 다문화가족 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경기를 통해 가족 간은 물론 다른 다문화가족과도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친숙해져 참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대전시는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다문화가족 무료진료 페스티벌

다문화가족 무료진료 페스티벌이 지난 4월 22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배드민턴 대회와 함께 진행됐다. 무료진료 페스티벌은 대전시여의사회와 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 주관으로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배우자, 자녀, 부모 및 북한이탈주민, 외국인노동자 등을 위해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사이다.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했으며 그동안 4,200여 명이 무료 진료와 건강검진을 받았다. 올해도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한 결핵 검사 등 건강검진과 함께 내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등 9개 과목의 진료가 이어졌다. 의료비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 치료를 포기하는 다문화가족 및 새터민,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의료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됐다.



제95회 어린이날 행사

대전광역시와 대전시 서구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 95회 어린이날 행사가 지난 5월 5일 대전시청 남문 광장과 보라매공원 일원에서 6만여 명의 어린이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엄마, 아빠 함께해요'를 주제로 식전행사와 기념식, 식후행사, 거리공연 및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러졌다. 식전행사로 시작된 행복 나눔 카퍼레이드는 복지 환경 및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눔의 참여 방법 그리고 생활안전 등을 어린이 및 시민 모두에게 알릴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으며, 60대의 경찰, 군, 소방서, 구급대 차량이 등장해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기념식에는 동심의 눈높이에 맞춰 권선택 대전시장이 어벤저스의 인기 캐릭터이자 복유립 신화에 나오는 천둥의 신 토르의 복장을,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은 스파이더맨, 장종태 서구청장은 슈퍼맨 복장을 하고 등장해 인기를 끌었다. 한편, 흥겨운 음악에 맞

춘 댄스 모듬북 퍼포먼스로 어린이날 테마를 표현한 어린이 모듬북 타악 공연과 우리나라 전통 무예인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으로 어린이들의 많은 호응을 유도했다. 기념식은 아동권리헌장 낭독, 자양초등학교 6학년 양아현 학생을 비롯한 총 16명에 대한 모범어린이 시상식, 어린이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어린이날 노래 제창으로 진행됐으며, 행복 퍼포먼스로 행복 비둘기 날리기와 비행선의 축하비행도 펼쳐졌다. 이밖에 식후행사로 펼쳐진 캐릭터 공연, 육군 특공무술 시범, 거리마술 공연, 로봇탐승 체험 등 거리공연과 군악대 공연, 버블 매직쇼, 코믹 피에로 마임 퍼포먼스 등도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또한 곤충, 병영, 소방체험 및 오감만족 가족문화 등 150여 개의 체험 부스 운영과 요리대회도 열려 호기심 많은 어린이에게 전통, 과학, 문화행사를 체험할 기회를 주었으며 전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대전광역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2017 대전광역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막식을 지난 5월 13일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야외무대에서 개최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 전시, 놀이 등 문화 체험이 펼쳐지는 장으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축제이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국악, 댄스, 노래 등 청소년 동아리 공연활동이 펼쳐졌으며, 야외광장에 마련된 다양한 체험부스 등을 통해 청소년을 비롯한 주민들도 행사에 참여했다. 청소년 동아리 공연에는 갑천중학교 G.E, 중일고등학교 J.C.M, 범동청소년문화의집 작은 소녀들, 국악동아리 다솜다미 등 총 8개팀이 출전해 재미를 더했다. 또한 청소년 1분 발언대에서는 평소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이야기 혹은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1분 이내로 발언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공했다.

아울러 야외무대 일원에 마련된 체험 부스를 통해 드론 체험, 도자기증, 빙수 만들기, 와플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 올해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이번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및 보라매 공원 일대에서 동아리 공연, 노래경연 대회, 워터축제 등 매월 한차례씩 열린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W](#)



DAEJEON 기초자치단체 활동 엿보기

동 구 D O N G - G U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복지원금 기탁



동구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월 12일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10명의 교복지원비 지원을 위해 2백만원을 동구 대표 복지브랜드인 '천사의 손길 행복+운동'에 후원하는 기탁식을 가졌다. 후원금 모금은 지난해 연말 열린 바자회 수익금 전액이며, 회원들은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매년 2백만원을 정기적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교복지원금으로 후원하고 있다. 또한 사랑의 밑반찬 나눔행사, 독거노인 안부 살피기, 아동 성폭력 예방 캠페인,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키미, 소년 선도보호 사회악근절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린이, 노인, 여성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여성지도자 소양교육



동구는 지난 2월 22일 10개 여성단체 회원 및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 및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동구노인종합복지관 김주희 관장의 '여성리더의 이미지 메이킹과 서비스 마인드'라는 주제로 실시된 소양교육은 소중한 나를 찾아 떠나는 행복한 여행, 이미지 메이킹과 비즈니스 매너, 21C 섬김의 리더십과 성공 포인트란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여성리더가 갖추어야 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청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



동구는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5월 11부터 26일까지 관내 5개 초등학교와 함께 2017년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했다. 이번 아동안전지도 제작은 성남·자양·대동·신흥·동서 초등학교 학생 100여 명이 직접 참여했으며, 평소 통학하면서 느꼈던 학교 주변의 위험지역을 스스로 지도에 표시하면서 아동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완성된 지도는 7월 중 학교에 배부하고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중 구 J U N G - G U

여성안전지킴이집 업무협약



중구는 지난 3월 22일 여성들의 안전귀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부경찰서 및 편의점 대표와 ‘여성안전지킴이집 운영’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여성안전지킴이집’으로 24시간 편의점 20개소를 지정해 112와 핫라인으로 연결되는 신고 비상벨 설치하고 여성안전지킴이집을 알리는 간판을 부착함으로써 위급상황 시 대피장소 제공과 비상벨 신고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구경찰서의 긴급 출동, 안전귀가 서비스로 사고 및 범죄 피해 예방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구여성단체협의회 환경정화 활동



중구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13일 보문산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10개 단체 20여 명의 회원이 모여 보문산 공영주차장부터 등산로 쓰레기 줍기, 재활용품 배출, 주변정리 등 보문산을 찾는 등산객 및 봄철 꽃구경을 나온 주민들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중구여성단체협의회는 매년 봄철이 되면 보문산 일원을 돌며 산불예방 및 환경정화 활동을 해오고 있다.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캠페인



중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는 지난 5월 5일 서대전공원에서 개최된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아동·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지역연대 위원과 유관기관 20여 명이 참석해 리플릿과 홍보물 등을 배부하며 홍보에 나섰다.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여성친화 ‘갈마울 행복마을’ 조성



서구는 지난 1월 13일 신갈마로 230번길 일대에 여성친화 ‘갈마울 행복마을’ 조성을 완료하고 현판 제막식을 했다.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원·투룸 밀집지역인 갈마1동 둔산여고 주변을 최종 사업지로 선정하고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해 안심로드 설치, 안심부스(공중전화, 무인택배함, 비상벨)설치, 로고젝트 설치, 낮은 옹벽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밝고 안전한 곳으로 변화시켰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연수



서구는 지난 5월 16일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休)에서 서포터즈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서포터즈 회원 간의 이해와 단합을 증진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도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 안전지도 제작



서구는 아동들의 안전한 등하굣길과 여성과 아동 폭력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관저초를 시작으로 만년초, 수미초, 갈마초, 봉산초, 원양초, 기성초, 느리울초 등 8개교에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했다. 이번 ‘아동 안전지도’ 제작에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아동·여성 관련기관 종사자 등이 참여해 학교와 놀이터 주변 등 아동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환경을 지도에 표기했으며, 지도 제작과정에 나타난 위험요인들을 개선·보완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유 성 구 Y U S E O N G - G U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유성구는 지난 2월 20일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2017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와 중점사업으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여성 안심존 구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성구는 2016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여성친화도시사업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유성구·유성경찰서 여성보호 업무협약



유성구와 유성경찰서는 지난 3월 13일 ‘여성 보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유성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여성 안심존 설치(비콘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망, 여성안심지킴이집)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비상 호출시 현장출동 체계를 강화하고 관·경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공동육아 ‘가족품앗이’ 활동지원 사업



유성구는 지난 4월부터 공동육아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족품앗이는 지역이웃과 그룹을 형성하고, 부모의 재능을 활용해서 돌봄, 육아 정보, 놀이, 학습 등을 공유하는 활동이다. 자녀 1인당 월 1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9그룹 52명의 자녀들이 활동하고 있다. 엄마들은 육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정보를 얻고 있으며, 아이들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성을 키워나가고 있다.

대 덕 구 D A E D E O K - G U

다문화가정 국제특급우편요금 지원



대덕구는 지난 2월 27일 다문화가정 50세대와 다문화가정 국제특급우편요금 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3개 기관(대덕구, 대전대덕우체국, 대덕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 모여 국제특급우편 발송 행사를 가졌다. ‘다문화가정 국제특급우편요금(EMS) 지원’은 대전 자치구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다문화 복지시책으로 지난해 71세대에 57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다문화가정 100세대에 1천만원의 국제특급우편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대덕구는 ‘행복한 삶을 위한 행복한 도시, 폭력 없는 도시’를 정착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 지난 4월 8일~9일(제6회 로하스금강축제, 로하스금강축제장)과 5월 5일(제95회 어린이날 행사, 한남대학교)에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다. 앞으로 대덕구는 민간기관과 함께 매년 4회씩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여성친화 서포터즈 역량강화 교육



대덕구는 지난 5월 23일 ‘성인지 감수성과 여성친화도시’ 특강, 여성친화 현장 모니터링 교육을 주 내용으로 여성친화 서포터즈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서포터즈는 성차별 의식 및 고정관념을 되짚어 보았고, 본격 추진할 모니터링 주제를 논의했다. 구민으로 구성된 대덕구 여성친화 서포터즈는 2015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정 운영에 적극 동참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요소들을 찾아내 정책제안 활동을 펼치고 있다.

青春

2017 청춘대담
청춘은
사랑하고
싶다



요즘 청년들을 우리는 3포 세대를 넘어 N포 세대라고 한다. 이들이 포기하는 N 중에는 연애와 결혼이 포함되어 있다. 연애와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할 여유가 없는 요새 청년들은 연애도 '스펙'이라고 말한다.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와 배재대학교는 지난 5월 19일, 배재대 북카페 Goat Bean에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의 천주희 작가와 함께 대전지역 청년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배재대학교 조경덕 하위대학장의 축하의 말과 배재대학교 가정교육과 송진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어서 천주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김덕유(대전세종연구원 기획조정실 사무원), 서한나(잡지 『보슈 BOSHU』 편집장), 장경춘(크로스핏 레벤 코치·대전 기본소득실험 '피어쓰기' 참가자), 정혜련(배재대학교 가정교육과 4학년), 최항준(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대담자로 참석해 청년들이 말하는 사랑과 결혼에 대한 생각, 현실, 문제점, 관련 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사회
송진숙 교수



축사
조경덕 학장

3.8 세계 여성의 날이란?
1908년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불타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미국 노동자들이 결기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 1975년부터 매년 3월 8일 UN에 의하여 공식 지정되었다.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공동개최



보라색 넥타이로 이번 이벤트에 동참한 유재일 대전세종연구원장과 센터 연구원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와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지난 3월 8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작은 이벤트를 진행했다. 세계여성의 날과 페미니즘을 상징하는 '보라색(인간의 존엄, 해방을 의미하는 여성운동 상징) 드레스 컬러를 맞추는 직원들에게 커피 쿠폰을 지급하고, 3.8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공유했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News

젠더 콜로키움 맛있는 사고에 주름을 잡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여성·가족분야의 새로운 이슈와 담론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젠더 콜로키움이 지난 2월 3일 '젠더화 된 노동시장과 여성노동'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는 '노동을 성별화하기: 화장품 행사도우미의 판촉노동 사례연구'(이은지,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로 판촉행사에 동원되는 젊은 여성도우미들이 여성성을 어떻게 내재화하고, 자신의 노동을 어떻게 의미화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젠더화된 노동시장을 분석했다. 두 번째 주제인 '장시간 근로와 조작: 초과근로시간이 여성관리직 비율에 미치는 영향'(한보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은 근로시간이 여성 관리직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보여줌으로써, 남성 중심으로 형성된 조직문화의 젠더 편향성에 주목했다.

대전세종여성정책포럼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대전·세종 지역의 맞춤형 여성 정책 개발을 위해 대전세종여성정책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5일 개최된 제7회 포럼에서는 권선택 대전시장과 정책간담회 형태로 여성가족 관련 지역이슈 및 대안 모색 등 여성가족정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8회 포럼은 3월 17일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혜경 한국여성학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이해숙 경상대 교수가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 담론과 과제'로, 김경희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여성 정치세력화의 현황과 과제: 총선과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가 '양성평등 지방자치와 남녀동수 기초의회제: 타당성 및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문경희 창원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정현 대전광역시의원, 신상숙 서울대 여성연구소 책임연구원, 이한태 충남대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진화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교육위원장, 주혜진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이 토론자로 참가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 및 정치진출'을 비롯해 '여성 직업정치인 양성'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News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턴트 위촉식 및 역량강화 교육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지난 3월 10일, '2017년도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턴트 위촉식 및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비전 및 계획을 공유하고 컨설턴트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함과 동시에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의 근간을 이루는 인문학적 젠더감수성을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교육은 배지연(입양가족공동체 아우르미 공동대표)의 성인지적 관점과 가족의 이해, 루인('양성평등에 반대한다' 작가)의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도 아닌 젠더정치학의 모색을 주제로 이뤄졌다. 컨설턴트는 총 17명이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법령, 계획,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결산 컨설팅을 담당할 예정이다.

성주류화제도 효율적 추진 방안 워크숍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지난 3월 23일, '2017년도 성주류화제도 효율적 추진 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17년 대전광역시 본청 및 5개 자치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총괄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및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주요 업무 추진 시기, 대상 과제 선정, 컨설팅, 교육 등에 대한 정보 공유와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기존의 담당자들은 성 주류화 제도 업무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선의견을 제시했으며, 올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는 제도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다. [W](#)

북부여성가족원

여성 창업가를 응원합니다

유성구 송강동에 들어선 북부여성가족원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여성과 가족을 위한 공간인 북부여성가족원은 지하 1층

지상 5층, 대지 3,301㎡, 연면적 7,173㎡ 의 규모로 건립되어

강의실, 대강당, 보육실, 장난감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여성의 취업과 창업 위주의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기존 다른 여성가족원과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4~5층에 마련된 북부여성가족원 여성창업지원시설은 네트워크 및 협업을 위한 코-워킹(co-working)공간과 미싱, 공예 등의 시제품 제작공간인 창업공방, 여성(예비)창업자 사무공간인 창업준비실과 창업보육실로 이루어져 있다.

창업준비실에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6.6㎡ 규모의 10개 부스가 공동공간 형태로 마련되어 있으며, 임대 보증금 50만원, 월 15,000원(관리비 포함)에 제공된다. 창업보육실은 '초기창업자'를 위한 총 37.26㎡ 면적의 4개 개별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대 보증금 50만원, 74,520원(관리비 포함)에 제공된다. 입주기간은 1년이며 운영평가 후 최대 2회 연장 가능하다. 각 공간에는 사무집기(책상, 의자, 사물함 등), 인터넷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코-워킹 공간, 창업공방, 세미나실 등이 이용 가능하다. 또한 창업교육 및 컨설팅 등 서비스도 제공된다.

현재 창업준비실 10개, 창업보육실 4개 등 11개 입주업체가 들어와 창업의 꿈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북부여성가족원은 경력단절 여성, 여성(예비)창업자들의 창업시장 진출을 위한 길라잡이로서 물론 다양한 교육과 창업 지원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비어있는 부스는 소진 시까지 수시 모집을 진행하니 새로운 꿈으로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여성들은 눈 여겨 보길 바란다.

창업지원시설 신청방법

신청자격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주소지를 둔 여성

· **창업보육실** | 창업(사업자등록)후 3년 이내인자

· **창업준비실** |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사업자등록)후 3년 이내인자

※ **우대대상** | 여성 장애인, 사회적경제기업 형태(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최근 2년 내 창업교육 또는 여성가족원 정규교육 이수자

분야 | 비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 제조업은 공해, 소음 등의 유발이 없고 소규모 사무실 창업 가능 시 허용

주소 | 대전광역시유성구 대덕대로 1173(송강동)

전화 | 042-270-7811~15



창업보육실

토탈 공예 재료, 전자상거래 | 부엉이 창고

부엉이 창고는 천연 비누, 소이 캔들, 석고 방향제, 디퓨저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원하는 양만큼 소분 판매 하는 곳이다.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향기까지 직접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캔들과 관련된 소품부터 천연 허브차, 아로마 테라피 오일, 천연 옷칠 제품까지 만날 수 있다. 이외에 '카네이션 소이 캔들과 센스 있는 티 라이트 세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홈퍼니싱, 철물, 인테리어, 광고 | 씽킹디자인

씽킹디자인은 홈퍼니싱 브랜드 이케아와 실내 인테리어 및 DIY 전문업체인 문고리닷컴, 손잡이닷컴의 사업 컨셉과 매우 흡사하다. 실내 인테리어, 가구 및 소품, DIY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일반 소비자는 물론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과 시간 투자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상품의 정보만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판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상품의 발굴과 제품 개발, 활용사례 등을 정보화하고, 이를 소비자와 공유함으로써 체험을 통한 구매를 유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또한 빈병 재활용 DIY, 네온사인 만들기와 조명 DIY, 소점포 및 HOUSE DECORATION(POP SIGN) 등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다.

디자인공예 | 코드컴퍼니

디자인 공예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코드컴퍼니는 틀에 갇힌 공예, 기술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예술이 아닌 감성을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전통 예술을 만들자는 가치에서 출발했다. 코드컴퍼니 김은선 대표는 한남대 우리옷 연구소, 이미석 우리옷과 규방공예에서 작가로 활동하던 중 전통 공예 기술을 현대적 디자인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타 분야와의 융합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 코드컴퍼니는 이 필요성과 의문점을 더해 공예의 사업화를 고민한 끝에 탄생했다. 코드컴퍼니는 전통을 마케팅의 산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전통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전통 양식에 기반을 둔 현대적 디자인을 추구한다. 이를 통해 전통 침선 공예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영, 시장의 이해와 경험을 통해 미래의 전통을 만드는 브랜드가 되고자 한다.



진로탐색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 이음교육컨설팅/연구소

이음교육연구소는 '행동하는 열정으로 기분 좋은 변화를 이루어 가치 있는 성장을 이끌어내는 인적 역량을 제공한다'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현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진로탐색을 위한 온·오프라인 3단계 플랫폼구축', 'M.T.P(Mental Training Power)를 통한 경력관리 및 직업접근 방법 제시', '교육분야 경력단절여성 강사양성 과정 및 강의기회 확대',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토대로 초·중·고, 대학교 진로 취업 교육 참여 확대' 사업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4차 산업(빅데이터, VR/AR, 3D, IoT), 인성, 창의력 캠프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웹/앱 기반의 교육 플랫폼 설계를 위해 협력 기관들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창업준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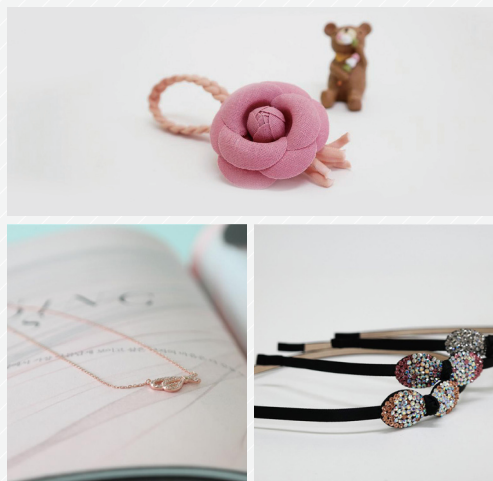
돌봄 서비스 I 대전 돌봄과 살림

대전 돌봄과 살림은 가사도우미, 병원간병사, 산모돌보미, 베이비시터 파견으로 각 가정의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전YWCA의 대표 브랜드이다. 가사도우미는 청소, 빨래 등 일상가사업무를 지원하며, 4시간, 8시간으로 구분되어 이용요금이 책정된다. 시간 연장과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추가금을 지불해야 한다. 병원간병사는 환자의 영양 및 배뇨관리, 위생관리, 이동도움, 의사소통,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며, 12시간, 24시간으로 구분되어 이용요금이 책정된다. 산모돌보미는 산모 및 신생아 케어, 가족 돌봄을 지원하며, 주 5일 근무로 기간에 따라 이용요금이 다르다. 베이비시터는 아기관리, 정서 및 건강, 놀이 관리를 지원하며, 가입비 5만원이 필요하다. 시간제로 이용할 경우, 1일 최소 4시간 이상 이용 시 접수 가능하며, 1개월 이상 이용할 경우, 월급제 인건비를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가사도우미 | 042-254-3080~1 병원간병사 | 010-9292-4340
산모돌보미 | 042-527-4511 베이비시터 | 042-936-4502
홈페이지 | djiwca.or.kr

엑세서리 전문숍, 온·오프라인 판매 I 에이트

에이트는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로써 온·오프라인 판매를 하고 있다. 트렌디한 디자인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및 유아용 액세서리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코딩교육 강사양성 I 대세코딩연구소

코딩교육 강사양성 사업을 하는 대세코딩연구소는 '함께 연구하는 교사, 함께 만들어 가는 수업'을 주요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홈페이지 및 공동 클래스 개설을 시작으로 현재는 교구 제작까지 진행하고 있다. 중점 교육 내용은 다음의 4가지로 구분된다. UA(언플러그드 액티비티: 몸으로 컴퓨터과학을 이해하는 활동), EPL(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PC(피지컬 컴퓨팅), IoT(사물인터넷) 등이다. 4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1일 캠프 등 직접 체험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다. 대세코딩연구소만의 특별한 점은 대부분의 강사는 안랩샘(안철수연구소에서 후원하는 사회적 공헌 사업) 출신이며, 수료 후에도 매주 금요일 북부여성가족원에서 스터디 및 컨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홈페이지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I 바이앤드

바이앤드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반응형 홈페이지, 모바일웹, 소핑몰 제작, 앱디자인 등 웹기반 작업을 주로 하는 Web 전문업체이다. 바이앤드라는 명칭은 made by, Angela Director의 약자로 작업자(angela)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바이앤드에서는 PC, 모바일 등 디바이스 크기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돼 유지·관리의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 기존 홈페이지를 가진 업체의 경우 모바일 홈페이지만 따로 구축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구축 후 관리가 어려운 경우 건별 또는 기간별 유지·보수도 운영한다. 또한 인쇄출판(로고·명함·전단지·브로슈어) 디자인도 제작하며,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포토샵, 일러스트, html코딩 등 오프라인 강습도 운영하고 있다. W



이메일 | byand@by-and.com
홈페이지 | by-and.com

여성계 활동 이모 저모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 대전여성단체협의회 워크숍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5월 15일 영덕에서 친목도모 및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소통의 장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 조성, 자연 체험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및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또한 단체장들은 회의실을 벗어나 대화의 장을 마련하니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단체 간 단단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발전하는 협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 오송 무가선 트램 시승 체험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5월 24일 화원 40여 명이 오송 무가선 트램 시승 체험 행사를 가졌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이번 체험은 트램이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비하고 도시경관 도시재생 등 도시발전을 바꿀 수 있는 미래 교통수단이라는 장점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김나영 협의회장은 "앞으로 현장체험 기회를 확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도우면 좋을 것 같다"면서 "트램을 타 보기 위한 관광객도 유치해 대전의 명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아빠와 함께하는 공감캠프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6월 3일 여성가족원 시청각실 및 도솔산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공감캠프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30가족 90여 명이 참석해 공동육아를 실천하는 내용에 관한 인형극을 관람하고 공동육아의 필요성과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또한 자연과 더불어 부모와 자



녀가 함께 체험하면서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대화와 배려로 세대 공감을 이룸으로써 친목을 도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 대전여성단체연합

✦ 2017 행동하는 대전여성 희망지기 신년인사회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월 24일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의 시작을 위해 '2017 행동하는 대전여성 희망지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대전광역시장, 대전시의원, 여성·인권·시민사회·마을·노동·풀뿌리·사회적 경제·문화·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리더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대정신과 성평등'이라는 주제로 안정선 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의 특강이 이어졌다.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대전여성행동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 3월 8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 109주년 기념 대전여성공동행동' 기자회견 캠페인을 진행했다. '동업노동 동업임금, 3시 STOP'을 슬로건으로 성별 임금격차의 부당함에 대해 알리고, 성평등한 일터를 소망하는 바람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총 29개의 단체와 연대해 5개구에서 시민들에게 물티슈를 나눠주며 3.8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공유했다.

✦ 6.10 민주항쟁 30년 기념 토론회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 6월 1일 대전NGO지원센터에 모여 6.10 민주항쟁 30년 기념사업 중의 하나인 '대전진보여성운동

30년, 돌아보며! 내다보며! 집담회를 개최했다. 대전진보여성운동 30년 역사를 대전여민회를 중심으로 돌아보았으며, 시민사회운동 영역에서 여성운동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지역여성 운동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 대전YWCA

✦ '애들아, 아침밥 먹자' 캠페인



대전YWCA는 지난 5월 12일 청소년의 올바른 식생활과 건강한 먹거리 교육을 위해 '애들아, 아침밥 먹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대전YWCA 실무자와 자원지도자 90여 명은 직접 삼각김밥을 만들어 대전 중학교와 대전여자중학교 1,2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아침밥을 전달했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리더로 잘 성장해주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기획된 캠페인은 올해로 12회를 맞았으며, 학생들은 매년 전교생이 고대하는 즐거운 캠페인이라고 전했다.

✦ 여성가장 및 결혼이주여성 장학금 마련 아나바다 장터

대전YWCA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난 5월 30일 여성가장 및 결혼이주여성 장학금 마련을 위한 아나바다 장터를 개최했다. 아나바다 장터는 2006년부터 해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행사를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지금까지 80여 명의 여성가장과 결혼이민여성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전YWCA 회원 및 직업훈련생이 기부한 의류, 생활용품, 그릇, 아동도



서 등을 판매했다. 올해도 수익금 전액을 센터 22주년 창립기념일에 여성가장 및 결혼이민여성 1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



대전YWCA는 지난 5월 26일 고용평등주간에 맞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날'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인 한국의 실태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임금의 날 제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정책 이행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용문네거리에서 출발해 피켓 가두 캠페인과 전단지를 배부하며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 대전광역시새마을부녀회

✦ 새마을의 날 기념 푸른 환경 가꾸기



대전광역시새마을부녀회는 지난 5월 10일 유성구 전민동 소재 엑스포 근린공원에서 새마을운동 제창 47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 푸른 환경 가꾸기 행사를 개최했다. '새마을의 날'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새마을운동 제창한 날인 4월 22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을 갖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새마을단체 대표 및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축사, 나무심기 순서로 진행됐다.

✦ 제2회 고부 한마음 대행진



대전광역시새마을부녀회는 지난 5월 25일 홀몸노인과 새마을며느리봉사대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노인섬기기 제2회 고부 한마음 대행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장한 며느리상 시상과 고부 결연식, 가정새마을운동을 위한 우리의 약속, 고부와 함께하는 노래자랑, 위안공연 등 흥겨운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다. 또한 부대행사로 세우리병원의 혈압 및 혈당 측정, 대전과학기술대학교와 동구자원봉사센터의 이혈, 테이핑, 손맞사지, 네일아트 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 새마을 이동 빨래방



대전광역시새마을부녀회는 3월부터 새마을 이동 빨래방 운영을 개시해 소외계층에게 무료로 세탁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 2일에는 서구 복수동에서 세탁봉사 활동을 가졌다. 2016년에는 931세대를 대상으로 빨래방을 운영했으며, 더불어 안부 묻기, 청소 해드리기, 밑반찬 전달 등 독거노인 사랑잇기 봉사도 함께 실천했다. 올해는 수혜가구 9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연중 운행(공휴일, 동절기 휴관)할 예정이다.

●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

✦ 제25회 세계 물의 날 기념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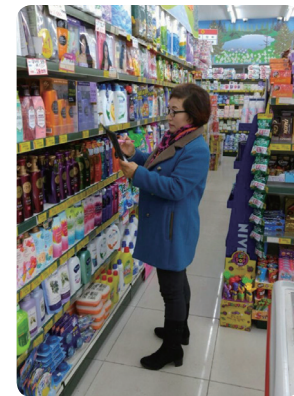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시지부는 지난 3월 24일 제25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건강한 수돗물과 물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실시했다. 수돗물은 미네랄이 많아 건강한 물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물이며, 현대인이 기여한 의학 성과의 최고점은 수도시설이다. 점차 물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투자를 늘리고 지원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필요성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뒀다.

✦ 물가동향 조사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시지부는 전통시장, 마트, 대형유통업체 등 대전지역 유통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2일에는 설 성수품 물가조사를, 3월과 5월에는 54개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20개 품목의 가격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 설 물가조사 결과, 전통시장의 설 차례상 비용이 많이 오른 것에 비해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매장은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과 5월 물가조사에서는 공공행진 중인 계란과 육류의 가격 지속, 채소 가격 하락, 과일과 공산품, 개인서비스 가격은 상승세로 나타났다.

✦ 소비자 정보 전시회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시지부에서는 지난 5월 27일 보문산에서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소비자정보전시회를 개최했다. 대전시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전시회는 시민, 청소년, 노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총 3회에 걸친 '찾아가는 맞춤형 눈높이 소비자정보전시회' 중 첫 번째 행사였다. 피해 다발 품목에 대한 소비자상담 사례 및 피해구제 방법 등 소비자 정보를 담은 포맥스 보드 패널 13점을 전시하고 현장에서 간단한 소비자 상담도 병행했다. W

영화 '콘택트'와 '컨택트' 속 여성 과학자의 저력

'그녀들'처럼, 소통하고 연대하라

글 · 지나라_과학스토리콘텐츠 SC00P 팀장

얼마 전 연구원 한 명을 만나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연구원은 여성이었고, 두 아이의 엄마였다. 가볍게 시작한 인터뷰였는데 영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화가 사뭇 진지하게 흘렀던 기억이 난다. “과학을 소재로 한 영화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왜 그런지도 말씀해주시겠어요?” 상투적인 질문이었다. 그런데 그 여성 연구원의 답변은 상투적이지 않았다.

영화 '컨택트'의 루이스 박사

WOMAN SCIENTIST



“『그래비티』였어요. 많은 사람이 감명을 받은 영화죠. 저는 조금 다르게 이 영화가 다가오더라고요. 영화에서 샌드라 블록이 연기한 스톤 박사는 아이를 잃은 엄마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는 자꾸 아이를 잃었기 때문에 스톤 박사가 우주로 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극복한 힘이 있었기에 지구로 돌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상하게 보는 내내 마음이 아팠던 영화였습니다.”

답변을 마칠 때쯤 여성 연구원의 눈이 살짝 붉어졌다. 분명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을 것이다.

SF 영화나 과학기술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이제 놀랍거나 이색적인 일이 아니다. 새롭게 탄생하는 첨단 기술 자체에 아예 '여성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인공지능(AI)과 가습 아픈 사랑을 다룬 『그녀』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AI 사만다는 여성(스칼렛 요한슨이 목소리를 연기했다)이다. AI 로봇의 가 공할 위력을 그린 『엑스마키나』에서 등장하는 AI 로봇 에이바도 여성이다. 외계 생명체와의 만남을 다룬 영화는 특히 그렇다. 물론 과학자는 아니지만, 『에이리언: Aliens』 시리즈의 주인공 리플리는 모성애와 인류애를 품고 있는 강력한 여전사의 모습이다. 인류의 기원을 찾아 나서는 『프로메테우스』에서는 여성 탐사대원 엘리자베스 쇼가 끝 까지 살아남아 외계 생명체와 사투를 벌인다.

여성 과학자와 외계 생명체의 만남은 필연

그렇다면 왜 미래 기술을 다룬 SF 영화는 여성 과학자를 좋아할까?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두 편의 영화가 있다. 『콘택트: 원제 Contact』와 『컨택트: 원제 Arrival』인데, 이 두 편의 영화는 여러 면에서 비교하기 좋은 영화다. 공통점도 많고 차이점도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낯선 외계 생명체와의 만남을 다룬 영화가 왜 여성 과학자를 주인공으로 선호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화라고 볼 수 있다.

1997년 개봉한 『콘택트』는 익히 알려져 있듯 『코스모스』의 저자이기도 한 칼 세이건이 쓴 동명



영화 '콘택트'의 엘리 박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다. 칼 세이건은 탁월한 우주 과학자인 동시에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누구보다 믿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 광대한 우주 속에 만약 우리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일 것이다”라는 그의 말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메타포이기도 하다.

외딴 시골에서 아버지와 사는 엘리 애로웨이(조디 포스터)는 별을 보거나 누군가와 의 교신하는 일로 어머니의 부재에서 오는 외로움을 달랜다. 수학과 과학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고 누구보다 별에 관심이 많던 그녀는 천체물리학자로 성장한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NASA)의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인 SETI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 아무도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믿지 않고, 예산까지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 엘리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된다. 그리고 마침내 외계 생명체가 보낸 신호와 그들을 만날 방법을 찾아낸다.

『콘택트』가 외계 생명체를 찾아 나서는 영화라면, 올해 초 개봉한 『컨택트』는 외계 생명체의 방문을 다루고 있다. 어느 날 지구 곳곳에 외계에서 온 낯선 이방인이 방문한다. 하지만 지구에 도착한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왔는지 알 수 없는 인류는 혼란에 빠진다.

모든 사람이 임무를 폼하고
포기할 때 그녀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무를 완수한다.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외롭게 살아가는 언어학자 루이스(에이미 애덤스)에게 어느 날 정부 기관원이 찾아온다. 외계 생명체가 정기적으로 보내는 신호를 해석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지구인들의 마지막 선택지이기도 하다. 루이스의 임무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자 외계 생명체가 도착해 있는 국가는 결국 전쟁을 결정한다. 인류와 지구의 운명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풍전등화의 상황. 하지만 루이스는 자신의 임무를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그들과의 대화에 성공한다.



이 세상 모든 앨리와 루이스에게 건투를!

『콘택트』의 앨리와 『컨택트』의 루이스는 모두 여성이다. 천체물리학자와 언어학자라는 정반대의 지점에 있지만 두 명의 주인공은 공통점이 많다. 한 명은 아버지의 부재, 또 한 명은 아이의 부재로 외로운 삶을 견뎌야 했지만, 누구보다 자신의 전공에 탁월한 전문성과 자신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소통과 연대의 중요성을 본능적으로 체화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그것이 여성이기 때문인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처 때문인지 영화에서는 정확히 설명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관없다. 자신의 주장을 굽힐 줄 모르고, 근거 없는 우월감과 권위에 사로잡힌 남성들 속에서 앨리와 루이스 박사가 난제를 풀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소통과 연대였다.

『콘택트』의 천체물리학자인 앨리는 주류 과학자들에게 미치광이 취급을 받는 괴짜 과학자의 의견도 기꺼이 수용한다. 심지어 ‘반(反)과학적’으로 분류되는 신학자와도 기꺼이 대화를 나눈다. 그들이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과의 소통, 그 자체다.

『컨택트』의 언어학자 루이스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과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해결하는 방식도 다른 물리학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리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과학적 문제에 봉착하면 기꺼이 도움을 청한다. 인문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언어학자와 과학적 이론으로 무장한 물리학자의 콜라보레이션이 결국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한다. 결국, 두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공통점은 소통과 협업, 혹은 연대의 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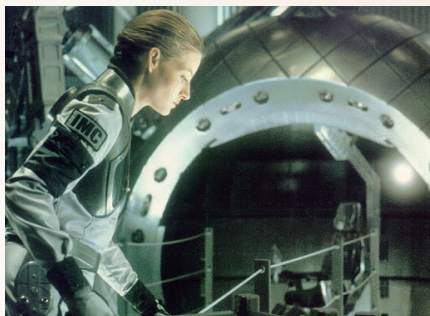
앨리와 루이스 박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소통과 협업이었다.

♫
누군가 소통과 연대를
‘여성성’의 특징으로 분류한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여성화되길 감히 바란다.

♀♀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용어가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AI와 빅데이터, AI 로봇과 IoT(사물인터넷), AR 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 등으로 구현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연결’이다.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물의 초연결 시대. 하지만 이러한 유토피아적인 전망과 함께 정작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이 헐거워지거나 아예 끊어질지 모른다는 디스토피아적인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콘택트』의 앨리와 『컨택트』의 루이스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어떤 인물이 과학기술 분야의



모든 사람이 임무를 폼하하고 포기할 때 그녀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무를 완수한다.

주인공이 되어야 할지 잘 말해준다. 또 과학기술의 리더가 갖추어야 할 성품과 자격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소통과 연대는 낯선 외계 생명체를 찾아 나서는 일에만 필요한 게 아니다. 과학기술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꼭 여성에게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 소통과 연대를 ‘여성성’의 특징으로 분류한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여성화되길 감히 바란다. 영화에 서처럼 여성 과학자들의 더 큰 활약을 펼치는 그런 사회를 기대하며, 이 세상 모든 앨리와 루이스의 건투를 빈다. [W](#)

천연 노화방지제, 타액 唾液



글·이용화_이용화플란트치과원장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찰(摩擦)로 가득 차 있다. 구강 내에서도 씹고 음식을 삼키는 것과 같은 수많은 마찰이 일어난다. 구강 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마찰은 유용한 마찰이다. 치아가 빠졌을 경우 그 반대편 치아는 음식을 저작하는 마찰을 할 수 없으므로 온전히 쉬게 된다. 이때 일어나는 구강 내 반응을 살펴보자.



첫 번째로 일을 안 하는 치아는 마찰시 일어나는 세정 작용이 없어지게 되어 많은 프라그와 치석이 쌓이게 되고 구취의 원인이 된다. 두 번째, 치아가 놓고 있다는 신호가 뇌에 오게 되면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 뼈에서 칼슘이 소실된다. ‘일도 안하는 녀석에게 칼슘을 줄 필요가 없다’고 뇌에서 판단을 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주변 치아조직과 다른 장기로 칼슘이 이동하게 되어 잇몸 뼈가 약해진다. 세 번째로는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osteocyte)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골밀도가 낮아진다. 결국 일하지 않는 치아는 서서히 약해지며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결론적으로 치아가 상실되었을 경우 임플란트나 브릿지 보철로 복원을 함으로써 적절한 마찰이 생기게 해주는 것이 치아 건강에 이롭다.

심리적인 마찰,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기는 구강 내 변화 중 치아 및 잇몸 건강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타액에 대해 살펴보자. 스트레스 반응은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몸을 지키기 위한 방어 작용이다.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순간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되고 이 물질은 면역 반응에 작용하는 백혈구의 한 종류인 과립구를 많이 생성하게 한다. 이 과립구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몸의 점막 조직을 파괴하는데 특히 많은 점막 조직으로 이루어진 잇몸 조직도 서서히 파괴된다. 또한 아드레날린은 몸의 교감신경을 향진시킨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류량이 감소하고, 구강 내로 분비되는 타액의 양이 현저히 줄어든다. 1일 타액 분비량은 1~1.5리터 사이인데 심한 경우 그 절반까지도 타액의 양이 줄어들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에 ‘입이 쓰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타액의 양이 줄어든 탓이다. 스트레스로 인한 타액의 분비량이 줄어들면 어떤 구체적인 영향이 있을까? 타액은 99%가 물이다. 나머지 1%에 익히 알려진 소화 효소 이외

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성분들이 있다. 노화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페록시다아제, 구강 내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뮤신과 알부민, 그리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호르몬인 파로틴. 이렇듯 유익한 노화방지 물질이 포함된 타액은 침샘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 조직에서도 타액이 분비된다. 그러므로 노화가 빨리 오는 것은 치아 상실에 따른 안모의 변화도 있지만 타액 분비량의 감소로 노화방지 물질이 적게 분비되는 원인도 크다.

타액 분비량 늘리는 몇 가지 방법

첫째,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다. 찬물은 속을 시원하게 하지만 몸의 혈류 흐름을 더디게 한다. 따라서 따뜻한 물을 자주 섭취함으로써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면 타액의 양이 많아진다. 두 번째로 동일한 타액 분비량이더라도 구강 내 온도가 높을 경우 휘발되며 건조해진다. 따라서 구강 내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차를 마시는 것도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된다. 생강차와 우유차, 연근차는 구강내의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차이다. 반대로 커피는 구강 내 온도를 높여주는 음료로 잇몸 질환을 더 심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잇몸이 약한 분들은 가급적 소량을 섭취하기를 권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키스하는 것도 타액의 분비량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액의 분비가 침샘을 통해서만 분비되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타액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의 틈, 즉 잇몸의 경계부에서도 분비된다. 노화방지를 위해 고가의 화장품과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치아와 잇몸의 틈 사이에서 타액의 분비를 가로 막고 있는 치석 제거를 연 1~2회 정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구강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길러보자. [W](#)



글 · 김유라_『나는 마트대신 부동산에 간다』 저자
주식회사 알앤디 대표

나는 마트대신 부동산에 간다

월평동 성천초등학교 1회 졸업생인 필자는 어려서부터 의문점을 가졌다. ‘왜 우리 집은 내 친구가 사는 옆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한가’에 대한 것이었다. 아파트가 뽁뽁이 들어서 있는 둔산지구에서 평생을 살면서 언제 집값이 오르내리는지, 언제 전월세가 잘 나가지 않는지를 지켜보게 되었다. 물론 처음부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무식하게 읽고 또 읽어

한남대학교 전자정보통신학과를 졸업한 해인 2006년, 국민은행 유성지점에 입사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했다. 둔산동 녹원아파트에 전세 8천5백만원으로 신혼살림을 차렸다. 시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제법 큰 돈이었다. 임신을 하자마자 퇴사를 했고 그로부터 2년 후인 2008년에 첫 아이를 출산하고 또 다시 전세를 택했다. 맞벌이를 하며 모았던 돈은 은행에 다니던 시절 펀드에 몰아 둔 상태였다. 그 때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며 문제가 발생했다. 가입한 모든 펀드가 거의 반토막이 난 것이다. 뭐 하러 힘들게 맞벌이를 했는지 답답하기만 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손해를 봤으니 정신 차리고 알뜰하게 저축하며 살자고 마음먹었지만 남편 월급으로는 하염없이 오르는 전세 값을 감당할 수 없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다. 경제가 어려워서 코스피 지수가 반토막이 난 마당에 전세가 가격이 쉼 없이 치솟고 있었다. ‘전세는 서민이 사는 것이 아닌가?’, ‘나만 돈이 없나?’, ‘다들 돈이 많은가?’, ‘왜 이렇게 전세가 오르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됐고, 본격적으로 경제에 대해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도서관에 수시로 방문해 경제, 주식, 부동산 관련 책을 10권에서 20권씩 빌려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용어 자체도 이해하지 못했다. 무식하게 읽고 또 읽었다. 경제서를 100권 정도 읽고 나니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되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전세가 올랐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전세는 집이 부족할 때마다 오른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부동산이 훨씬 안정적

2010년 1월, 전세가 자꾸 오르니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월평동 진달래 아파트를 1억7천만원에 매수하여 1억5천만원에 전세를 놓았다. ‘전세 헛지’를 한 것이다. 이것은 전세가 오르면 내리던 상관없이 내가 입주할 때 세입자에게 1억5천만원만 반환하면 된다. 전세가 쉼 없이 오름 추세인데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하는 방법이다. 당시 2천만원에서 취득세, 복비를 들여 첫 내 집을 마련했다. 그리고 4년 이상 괴경동에 있는 낡은 재개발 빌라에서 살았다. 그 이유는 재개발 빌라는 전세가 전혀 오르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2010년에 2천5백만원을 투자한 아파트가 1년 만에 매매가격 2천만원 정도 오르게 된 것이다. 그때 종잣돈을 은행에 예금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대외경기에 따라 하락 위험이 큰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부동산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때부터 저축에 탄력이 붙었다. 2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2천만원이 상승했으니 이런 식으로 매년 오를만한 집을 1채씩 구입한다면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아이를 키우면서 연봉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1년도에 필자는 이미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있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많은 연구를 했다. 그 노하우로 2013년도에는 다음카페 ‘짠돌이’에서 주최하는 수퍼짠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2014년에는 ‘돈이 모이는 생활의 법칙’이라는 책을 공동저자로 발간했다. 그렇게 미친 듯이 저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1천만원을 빨리 모아야 2천만원으로 불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저축하는 기간에도 책을 읽고 부동산을 다니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아무리 적게 사더라도 기본 몇 만원을 쓰게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2~3시간은 버려진다.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가끔적이면 오정동과 노은동의 농수산물시장에서 대량 구입해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거나, 생협 자연드림에서 배달을 하고, 아파트 장터에서 식재료를 구입했다. 혹시 대형 할인마트에 갈 일이 생기면 필자는 서점으로 향해 신간을 보고 남편이 적어준 목록을 가지고 장을 봤다.

평범한 35세의 주부가 15채의 집을 가질 수 있었던 노하우

늘 투자에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지만 8년간의 투자기간 동안 많은 경험을 했고 그것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자산이 되었다. 종잣돈 3천만원으로 시작해 현재 15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되었다. 2010년에 재테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남편의 월급은 불과 250만원이었다. 세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35세의 주부가 15채의 집을 가질 수 있었던 노하우가 궁금하신가? 책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간단한 몇 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고 싶다.

첫째,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라. 해당 지역의 연간 필요 세대에 비해 공급되는 아파트의 세대수가 적으면 전세 가격이 무조건 올라간다. 투자금이 적을수록, 전세상승이 가파를수록 수익이 높다. 화재보다 수요와 공급이 더 중요함을 잊지 말자.

둘째, 학군, 교통, 상권 등이 좋을수록 가산점이 있다. 가급적이면 땅값이 비싸고 선호도가 높은 동네에 투자해야 한다. 이런 지역이 직주근접이 좋고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득수준도 높다.

셋째, 새 아파트일수록 좋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지은 아파트의 비율이 높다. 20년이 훌쩍 넘어가면서 새 아파트의 선호 현상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대전의 도안신도시가 상권과 학군이 약함에도 왜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는지, 세종시의 프리미엄이 왜 그렇게 가파른지를 돌아켜 보면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의 말을 믿거나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투자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10번 잘하다가 한번 잘못하면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는 것이 투자다. 본인 스스로의 원칙을 가지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투자해야 한다. 남의 말을 믿고 하는 투자는 위험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생은 한방이 아니다. 천원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천만원을 모을 수 있고, 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많은 사람만이 2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만들 수 있다. 작게 조금씩 천천히 재테크를 시작하도록 하자. 도서관의 수많은 경제, 재테크 도서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아이들을 데리고 부동산에 집 보러 간다고 아무도 눈치 주지 않는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어린 아이가 있으면 우선 입장까지 시켜준다.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주변의 부동산부터 둘러보도록 하자.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존재한다. 



아들 셋을 키우는 서른넷의 전업주부, 어떻게 종잣돈 3천만 원으로 아파트 15채를 보유하며 성공적인 투자자로 변신할 수 있었을까? 이 책에는 평범한 주부가 돈의 본질을 공부하고 실천하며 점차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한 편의 성장 드라마처럼 펼쳐진다. 미친 듯이 오르는 전세가, 아무리 아끼고 모아봤자 내 집 하나 마련하기 힘든 시대. 이 책에는 첫막이를 얻은 채 절박한 마음으로 부동산 공부에 매진하고, 아이들을 양손에 잡고서 현장 조사에 나서며 쉬지 않고 투자를 했던 저자의 경험담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무식하게 읽고 또 읽었다.
경제서를 100권 정도 읽고 나니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되기 시작했다.





핸드메이드 자외선 로션

더위에 지친 내 피부를 부탁해

글 · 사진 · 김영화_핸드크라프트 작가 · 대전시민대학 강사

대전북부여성가족원 강사 · 소소한 일상에 작은 감성 찾기 '보나' 대표

매일 얼굴에 발라야 하는 화장품.

이렇게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늘어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자연에서 가지고 온 재료에 관심을 가지고 천연, 유기농 화장품을 구매하거나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는 추세이다.



천연·유기농 자외선 차단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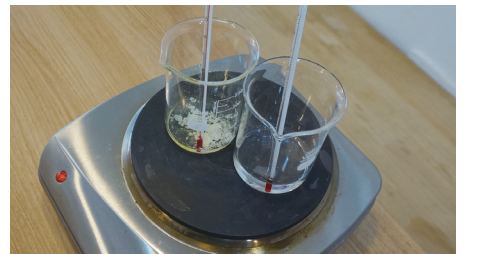
화장품을 만든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직접 만들어 보고 사용해 보면 천연화장품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천연화장품의 가장 큰 장점은 화학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일반 화장품들에 비해 피부에 친화적이고 자극이 적다. 또한 피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겨울 동안 두꺼운 의복으로 가려졌던 피부들이 봄과 여름에 노출되면서 미세먼지, 강한 햇볕의 영향을 받아 피부가 손상되고 붉어지는 등 더 취약해지게 된다. 이것은 자외선이라는 빛의 파장 때문이다. 이 자외선은 계절에 상관없이 우리 몸에 영향을 준다. 자외선을 많이 받은 피부는 멜라닌 색소 침착을 일으켜 피부를 검거나 칙칙하게 만들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피부 노화를 빨리 진행시킨다. 이런 이유 때문에 화장품 중에서도 필수품으로 꼽는 것이 자외선 차단제다.

외출 시에는 모자나 섀글라스 등으로 피부를 보호하고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 피부 손상을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외선 차단제는 SPF(자외선 차단지수)수치와 무관하게 2~3시간마다 덧발라 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UVA(자외선A) UVB(자외선B)를 모두 차단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외선 차단 능력이 탁월한 블랙세서미오일과 호호바오일 등 천연재료를 담아 직접 만든 자외선 차단로션으로 강한 햇볕과 대기오염에서 피부를 보호해보자. [w](#)

만드는 순서



① 모든 용기와 도구는 알코올 이용해 소독한 후 수상재료, 유상재료, 첨가물재료를 각각 다른 비커에 계량한다.



② 수상재료를 계량한 비커와 유상재료를 계량한 비커를 중탕해 65~70도 사이가 될 때까지 온도를 올려준다.



③ 중탕이 완료되면 유상재료 비커에 있는 재료들을 수상재료 비커 안에 소량씩 부어 잘 혼합한 다음 실리콘 주걱을 이용해 잘 섞어준다. 미니 핸드블랜더를 이용해도 좋다.



④ 점도가 생기는 시작하고, 온도가 약 40도 정도로 내려가면 미리 계량한 첨가물재료를 넣은 후 잘 섞어준다. 로션 농도가 되면 소독한 용기에 담는다.

재료와 도구



수상재료 | 라벤더 플로럴워터 40g

유상재료 | 블랙세서미오일 3g, 호호바오일 3g, 녹차씨오일 2g, 올리브유화왁스 2g

첨가물재료 | 수용성 티타늄디옥사이드 4g, 히아루론산 3g, 나트록티스1g, 라벤더 에센셜오일 3방울, 로즈우드 에센셜오일 2방울

도구 | 유리 비커, 전자저울, 온도계, 실리콘 주걱, 미니 핸드블랜더, 핫플레이트 등

천연화장품 TIP

- 천연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발라 흡수시키기 때문에 모든 용기와 도구는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천연화장품의 경우 냉장보관 3개월을 권장한다.

공간 '구석으로부터' 서은덕 대표

“내가 즐겁고 재미있는 게 문화예술이죠”

대전 유일의 게스트하우스 산호여인숙이 지난해 문을 닫으면서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대흥동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1년 8월 문을 연 산호여인숙은 숙박의 기능은 물론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 작은 전시와 공연이 열리던 문화 소통의 창구였다. 대흥동에서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알만한 문화활동가이자 초록대문의 산호여인숙 서은덕 대표. 그녀가 산호여인숙 이후, 정동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대전 역사의 어느 한 지점에 머물러 있던 옛 정동교회에 '구석으로부터'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꾸었다는 소식이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인쇄골목의 안쪽,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옛 정동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한 그녀를 만났다.



서은덕 대표
· 2011~2016년 | 산호여인숙 운영
· 2014년~현재 | 대동작은집 운영
· 2017년~현재 | 공간 구석으로부터 운영

공간 '구석으로부터'(옛 정동교회) 사진 | blog.naver.com/onthecorner2016



Q.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어려서부터 함께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친구들과 재미있고 신나게 노는 방법 중 하나가 예술적 행위에 기반을 둔 것이었고, 그게 저한테는 가장 흥미로운 놀이였죠.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 그림을 그리거나 연극을 하는 것 등이에요. 그런 공공 일을 자주 벌이다 보니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더불어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어머니 덕에 공연, 전시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그런 활동에 제재가 있는 집안 분위기도 아니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어요.

Q.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사회생활의 첫 시작은 시민운동단체의 활동가였죠. 더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이 더불어 어울려 사는 세상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7년간 활동했어요. 활동을 하다 보니 단체의 한 선배가 문화예술 기획 활동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었죠. 제가 논리성을 요하는 일보다는 감수성을 자극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어한다는 것을 아셨던 거 같아요. 이를 계기로 우연인지 필연인지 대흥동의 동네 축제 '대흥동 립만세'를 함께 하게 됐고, 그 축제를 통해 만난 대흥동의 예술인들과 산호여인숙까지 운영하게 된 거죠. 산호여인숙에서는 여인숙 본연의 기능인 숙박을 살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고, 더불어 문화예술활동과 마을활동을 진행했어요. 전시, 공연, 마을축제, 동네잔치형 벼룩시장 '짜투리시장'을 열며 5년간 대흥동에서 활동했어요. 지금은 대동작은집과 정동의 공간 구석으로부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Q. 대흥동(산호여인숙)에 오랫동안 터를 잡아오다가 정동으로 옮긴 이유는

대흥동이 많이 달라졌어요. 맨 처음 대흥동을 만났을 때는 예스러움과 한적함, 문화적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하지만 점차 상업이 발달되면서 그런 여유를 찾기 어렵다고 느꼈죠. 저는 공간을 찾아오는 분들이 서로의 생

각과 문화를 천천히 향유하기를 바라거든요. 이미지와 경험을 빠르게 소비하기보다는, 산호여인숙 3년차부터 새로운 공간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근 2년간 찾은 끝에 정동 한 구석에 인쇄소 창고로 쓰이고 있던 50년 된 정동교회를 발견하게 됐어요. 정동에는 인쇄소, 한약방, 한의원, 식당 등 삶의 결이 다양하더라고요. 바쁘고 열심히 움직이는 정동에 '엮집 예술 하는 애들'로 새롭게 시작한 거죠.

Q. 산호여인숙, 공간 구석으로부터는 다른 의미를 가진 공간인지

공간을 처음 만나면 그 목적부터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그 공간의 모습과 특징을 잘 살피고 어떤 것을 할지 실험해보죠. 그렇게 보면 크게 다르진 않아요. 산호여인숙은 과거 여인숙이었고, 구석으로부터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고민하는 저희는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조합에 의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산호여인숙에서는 숙박과 문화예술을 했고, 공간 구석으로부터는 숙박을 하지 않고 문화예술적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Q.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대전의 문화예술 활동 여건은

제가 체감할 때 대전의 문화예술 활동 여건이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은 생존, 즉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것에 유지가 어려우니 30대 중반쯤 되면 활동을 많이 접어요. 예술은 집중된 시간과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속에서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다른 일거리를 갖고 예술 활동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Q. 대전지역의 여성문화활동의 실태와 여건은

대전에서 제 나이 또래인 30대 중후반의 여성 예술인을 찾기 힘들어요. 예술인에 대한 섬세한 지원으로 예술 활동 연령대를 고르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 작업들이 문화예술계를 더욱 더 풍부하게 할 것임에는 틀림없죠.



Q. 대전이 문화와 예술이 풍부한 곳으로 바뀌려면

자신이 문화활동가나 예술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화예술 행위를 하고 향유함에 따라 삶 속에 문화예술적 영역들이 늘어날 때 문화와 예술은 자연스럽게 풍부해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 사회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기에 일단 그 지점에서 어려움에 부딪히죠. 어디 특별한 곳에 가서 큰 돈을 지불하는 먼 세계의 예술이 아닌 내가 내 영역 근처에서, 즉시 예술을 행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대전이 문화예술이 풍부한 곳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화예술지원 정책보다 기본소득과 같이 삶에 대한 기본적 지원이 필요하죠.

Q. 미래의 문화활동가 및 예술인들에게

무언가를 찾아보고 참고하는 것보다 내가 재미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의 독창성은 누가 끌어내주거나 하자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가 원하는 걸 찾고 내보일 때 발휘하게 되니까요. 일상에서 자신이 즐겁고 재미를 느끼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만들어지거든요. 본인의 특징과 에너지에 맞는 것을 꼭 찾길 바랍니다.

대전 캠핑장 BEST 5

달빛 베개 삼아, 별빛 이불삼아

글 · 정세영_대전CBS 기자

낮이나 밤이나,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자연과 사람뿐이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자연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그들만의 대화를 나누는 경험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밤하늘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별들을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여느 아침과는 다른 느낌
으로 깨어 기분 좋게 침낭에서 뒤척이며 나와 마시
는 달콤한 커피 맛은 환상적이다. 맑은 아침 공기
를 한껏 들이마시며 걷는 숲속 산책길, 그 전날 밤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함께 해줬던
모닥불이 정겹다. 정식 주방도 아니고, 갖춰진 조
리도구도 없는 이 거친 환경에서 만들어진 음식들
은 왜 그렇게 하나같이 꿀맛인지. 무엇이든 맛있고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이 야외 음식이다.

가족 중심의 휴식, 자연친화적인 휴식에 대한 요
구가 높아지면서 '숲 속에서의 하룻밤'이라는 낭만
과 여유를 선물하는 캠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대전에도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들이 도심 가까운 곳에 속속 들어서고 있다.



장태산야영장

국내 유일의 메타세콰이아 숲이 울창하게 형성되어 이국적인 경관을 자랑하는 서구
장안동 장태산자연휴양림에 삼림욕과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현대식 시설의 야영장이
지난 해 6월 조성됐다. 장태산 휴양림 야영장은 A, B, C 3구역으로 구분, 총 20면(데크
6, 캠핑 14)이 조성됐으며 야영지원센터에 샤워장과 세척장, 화장실 등이 마련됐다.
야영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피크닉테이블, 주차장 개별전기시설 등을
갖췄으며 산림인접지역으로 모닥불이나 숯, 번개탄 사용은 불가하고 버너 사용은 가
능하다.

캠핑장 이용 | 홈페이지(jangtaesan.or.kr) 예약

이용료 | 비수기 2만원, 성수기 2만 5,000원

문의 | 042-270-7883



66

맑은 아침 공기를
한껏 들이마시며 걷는
숲속 산책길,
그 전날 밤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함께 해줬던 모닥불이
정겹다.

99



로하스가족공원 워터캠핑장

지난 2015년 7월 대덕구 미호동 대청댐 보조여수로댐 인근에 조성된 로하스 가족공
원에 워터캠핑장이 개장했다. 금강과 대청호의 수려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휴식처
로 오토캠핑장 40개, 카라반 5개, 글램핑 5개 등 총 50면이 대전 최고의 시설로 갖춰
졌다. 캠핑장에는 피크닉 테이블과 평상, 텐트를 칠 수 있는 데크는 물론 야외풀장, 사
워실, 개수대, 화장실, 풋살장, 편의점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마련돼 있다. 대청호와
계족산 자락에서 뜨는 일출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전망대에서는 대청호의 아름다운
풍광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특히 공원 중앙무대 앞에 바비큐장을 오픈, 10월 말까지 운영한다. 테이블 당 5인
기준 3만원으로, 고기와 야채는 각자 준비하고 그릴이나 숯은 대여하면 된다. 금요일
과 토요일에는 라이브 공연도 열린다.

캠핑장 이용 | 홈페이지(camplohas.com) 예약

이용료 | 오토캠핑 3만2,000원(단, 비수기 평일만 2만7,000원), 글램핑 12만~18만원

문의 | 042-933-6575





뿌리공원 캠핑장

효 테마파크인 뿌리공원 내에 조성되어 있는데, 숲 속 산책로 곳곳에 사이트가 마련되어 울창한 숲 그늘이 만들어진다. 캠핑을 즐기면서 뿌리공원에 설치된 성씨 조형물을 돌아볼 수 있고 잔디광장과 야외산책로, 족보박물관 등도 캠핑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특히 지난 3월 뿌리공원 맞은편에 대전효문화진흥원이 문을 열어 아이들과 함께 둘러봐도 좋겠다. 뿌리공원 내 소나무 숲속에 텐트를 칠 수 있는 평상 29개(2.5×3.2m)가 마련되어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야외탁자와 취사장, 샤워장도 준비돼 있다. 특히 이용료만 부담하면 평상과 텐트, 야외탁자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랜턴·휴대용 가스레인지·모포·코펠 등은 각각 2,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 가능하다. 10월 말까지 주말(금요일 오후~일요일 오전)에 운영되며 여름 성수기인 6~9월에는 평일에도 상시 이용가능하다.

캠핑장 이용 |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이용료 | 2만5,000원

문의 | 042-581-4445

상소오토캠핑장

지난 2015년 6월 동구 상소동에 문을 연 상소오토캠핑장은 한 해 약 2만~3만여 명의 캠핑족들이 이용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다. 캠핑사이트에 주차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대전 최초의 자동차 야영장으로 1만6,962㎡의 면적에 차량 주차가 가능한 50면의 캠핑사이트와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졌다. 최근 캠핑장 확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야영장 사이트 40면과 주차장 120면, 화장실과 취사장 등도 추가 구축될 예정이다. 캠핑장과 바로 인접한 상소동산림욕장의 수려한 경관과 함께 몽돌지압길, 물놀이장(4개소), 400여 개의 돌탑, 4,000여 본의 메타세쿼이아 등 울창한 수목을 만나볼 수 있다. 동구청이 직접 운영하며 인근 남대전 IC 등을 활용한 교통여건 및 접근성도 훌륭하다.

캠핑장 이용 | 홈페이지(sangsocamping.kr) 예약.

이용료 | 성수기(7~8월)·주말 및 공휴일 2만5,000원, 비수기 평일 2만원

문의 | 042-273-4174

산디마을 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지난 2015년 5월 문을 연 산디마을 생태공원 오토캠핑장은 황톳길로 유명한 계족산 장동산림욕장 인근에 자리 잡았다. 도심과 가까워 접근이 용이하고 계족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 캠핑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오토캠핑장 일반사이트 16개면과 대형사이트 1개면 등 17면에 관리동과 농산물공판장, 개수대, 화장실, 샤워실, 정자 등이 갖춰져 있다.

캠핑장 이용 | 대덕구 홈페이지(daedeok.go.kr) → 분야별 정보 → 교육·문화란 예약, 전화 예약 070-4158-3360

이용료 | 일반사이트 성수기(7~8월)·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 2만5,000원, 비수기(목~일요일) 2만원

문의 | 장동영농조합법인 070-4158-3360

한가지 모양을 위해
애쓰고 계신가요?



“남자는 울면 안 돼!”
“여자는 조심하게 행동해야지!”
아니요.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성 고정관념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성 고정관념을 씌우지 마세요.
성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질 때 나 다워질 수 있습니다.



2016 양성평등 디자인 공모전 일반부 동상
여자모양의 삶, 남자모양의 삶_김지윤, 김다영

성역할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찾자는 의미를 담은 작품.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면서까지 '여성성' 혹은 '남성성'이라는 특성에 스스로를 끼워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불편해 하고 있음을 표현함.